



고리원전 2호기 운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3일 고리원전 2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에 대한 심의를 재개한다. 사진은 이날 부산 기장군의 한 마을에서 바라본 고리원전 2호기(오른쪽 두번째)와 영구 정지 8년 만인 지난 6월 해체가 결정된 고리원전 1호기(맨 오른쪽) 모습. /뉴스

한미 통상팀 협상끝 트럼프 결단이 변수

3500억달러 투자조건 막판 조율
김용범 실장 “일부 진전 있었다”
현금요구 완화설에 기대감 고조
APEC 전 합의땀 정상회담서 발표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후속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 대표단은 그간 3500억 달러 투자 방식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해 워싱턴을 수 차례 방문했다. 이후 이달 22일(현지시간) 열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면담을 끝으로 실무진 간 대면 협상은 일단락됐다.

관건은 다음 주 경북 경주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의 최종 타결 여부다.

22일 협상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나머지 쟁점을 두고 상대측과 2시간가량 협상을 벌였다. 지난 16일 같은 장소인 워싱턴 D.C. 상무부 청사에서 같은 인물인 러트닉 장관과 협상한 지 불과 6일 만에 다시 미국을 찾은 것이다.

김용범 실장은 22일 협상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잔여 쟁점에 대해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러트닉 장관과 다시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는 “만나기는 어렵다. (향후 협의는) 화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이같이 완전한 타결은 아니지만 실무진 대면 협상의 종료는 양국 정상들의 결단만 남겨 두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경주(10월31~11월1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참석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내한이 예정돼 있다.

트럼프는 공개 석상에서 한국이 약속한 미국시장 내 3500억 달러(503조 원) 투자를 전액 현금으로 할 것을 종용한 바 있다. 한국은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 고조 등의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해 왔고, 실무진 협상이 이어진 상황이다.

앞서 20일 김정관 산업장관은 “미국이 여전히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저기까지는 아니다”라며 일부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전액 현금 또는 선불 등이 아닐 경우, 납입기한 설정이 쟁점이다. 국내의 일부 매체는 한국이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2000억 달러 상당의 대미 투자를 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신용보증 등으로 돌리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이 소문대로라면 트럼프 임기를 훌쩍 넘어선다. 그가 납입기한 늘리기를 용인할지 미지수다.

앞서 김용범 실장은 러트닉 장관과의 회담 전 취재진과 만나 투자기간 확대에 대해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돼야 한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충격이 커서는 안 되는데 그게 다 서로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제시한 대미 투자 시 외환시장 안정성 기준(연 150억~200억 달러)과 관련해서는 “각 기관과 미국 측 모두 분석이 있어 이를 놓고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양국이 만약 APEC 정상회의 이전에 최종합의에 이를 경우, 이르면 29일로 예상되는 APEC 계기 한미정상회담의 일환으로 합의 내용을 공식화할 수도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인벤티지랩, 고농축 제형으로 항체주사 혁신

메트로경제 ‘제약·바이오 포럼’ 새 플랫폼 ‘바이오플루이드’ 개발
주사제 용액 기본대비 2배 고농축
병원 IV 대신 집에서 1분주사 가능

인벤티지랩이 항체의약품의 정맥주사(IV) 제형을 고농축해 피하주사(SC) 제형으로 바꾸는 새로운 플랫폼 ‘바이오플루이드(BioFluidic)’를 개발했다. 주사제 용액을 기존 개발된 기술보다 2배 이상 고농축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로 글로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가 지난 22일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개최한 ‘2025 제약·바이오포럼’에 기조강연자로 참석해 이 같은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번 포럼은 ‘K바이오 혁신:독자기술로 여는 미래’를 주제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국내 바이오테크의 기술들을 조명했다.

인벤티지랩은 자체 개발한 독자 플랫폼 ‘IVL-드러그플루이드(DrugFluidic)’를 활용해 바이오플루이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드러그플루이드는 미세임자(마이크로스피어)를 만들어 약물을 서서히 방출하도록 하는 약물전달시스템(DDS)이다. 인벤티지랩은이 플랫폼을 통해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개발해왔다. 이 마이크로스피어 기술을 항체 의약품에 적용하면, 주사제 입자의 부피를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가 지난 22일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개최한 ‘2025 제약·바이오포럼’에 기조강연자로 참석해 새로운 플랫폼 ‘바이오플루이드’를 공개했다. /손진영 기자 son@

크게 줄여 피하 주사가 가능한 고농축 형태로 만들 수 있다.

환자가 IV를 맞을 경우, 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거쳐 긴 시간 주사를 맞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SC 제형의 경우, 환자가 집에서도 1분 안에 직접 주사를 할 수 있지만, 항암제와 같이 많은 양의 의약품을 주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김 대표는 “항체 의약품 입자를 고농축한 마이크로스피어를 만들어서 고농도, 저부피 제형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며 “우선적으로 항암제에 적용해, 병원에서 맞아야했던 주사제를 피하 주사 형태로 맞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바이오플루이드는 국내외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보다 훨씬 고농축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경쟁력을 가진다.

김 대표는 “이제까지 공개된 기술들 대비 2배 이상의 기술적 개선이 가능한 수준을 확보했으며 추가적인 플랫폼 고도화 연구도 진행 중”이라며 “특히 약물을 SC 제형으로 변경을 했을 경우에도 기존과 동등한 약물동태학(PK) 결과를 얻었기에 사업화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분야인 만큼 바이오플루이드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미국 바이오테크인 할로자임(Halozyme)이 스타트업, 일렉트로파이(Elektrofi)를 인수한 사례가 있었다. 1조3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대형 딜이었다. 일렉트로파이는 고농도 의약품용 소량 주사로 투여 가능하게 하는 기술 ‘하이퍼콘(Hypercon™)’을 보유한 기업이다.

김 대표는 “인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적으로 고농축 SC 제형이 차세대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다”며 “다음주 보스턴에서 열리는 ‘약물전달체 파트너십 행사’(PODD)에 참여해 이 기술을 공개하고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미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한은, 기준금리 동결... “부동산·환율 더 살피야”

9월 하순 이후 환율·금리 변동성 ↑
수도권 주택가격·거래 다시 확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물가안정 흐름과 소비·수출 중심의 성장 개선을 언급하면서도, 수도권 주택시장·가계부채에 대한 대책 효과와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요인을 더 살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금통위는 다음 결정 시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2.50%)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한은은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성장 개선이 이어지고 있으나 전망 불확실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금융안정 관점에서 한은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환율 변동성을 추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 변동과 국고채금리의 최근 등락도 언급했다.

물가·성장 경로에 대해선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각각 2.0%, 1.9%) 및 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담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원물가(각각 1.9%)가 8월 전망치와 부합하고 성장률(각각 0.9%, 1.6%) 또한 대체로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대외 여건도 금리동결 판단에 반영됐다. 한은은 미국 관세 인상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세계 성장세가 완만히 둔화되고 물가 경로가 국가별로 차별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내에는 건설투자 부진에도 소비 회복과 수출 호조로 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한

편, 불확실성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9월 하순 이후 환율·금리 변동성이 커졌고 수도권 주택가격과 거래가 다시 확대됐다는 점도 고려했다.

정책 경로와 관련해 한은은 “성장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유지하되 추가 인하의 시기·속도는 대내외 정책 여건 변화 및 물가·금융안정 상황을 보며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메트로 한줄뉴스



▲與, 국힘 10·15대책 비판에 “투기세력 등에 업고 부동산 쿠데타”
▲정동영 “남북, ‘평화적 두 국가’ 기초로 교류하면 사실상 통일”
/사진 뉴스

▲김재섭, 복기왕 ‘15억 서민아파트’에 “집 못사서 분통 터지는데 염장 지르나”
▲“전두환은 학살자냐” 문자 답 못한 대전시교육감...국감장 고성

▲외교부, 中 ‘서해구조물’ 잠수부·고속정 활동에 “문제 제기 할 것”
▲공군참모총장 “오산기지 압수수색, 정상적 절차였다”

“자본시장, 고령화·저성장 위기 타개할 핵심역할 할 것”

이현승, 금투협회장 ‘출사표’

비공식 출마자 등 4~5파전 예상
이현승 전 대표 “회원사 ‘즉시소통’
든든한 동반자·진정한 대변자 될 것”

이현승 전 SK증권·KB자산운용 대표가 23일 차기 금융투자협회장 선거에 공식 뛰어들면서 금투협회장 선거가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갔다. 공식 출마 의견을 밝힌 것은 이 전 대표가 처음이다.

금융투자업계는 4~5명이 자본시장 관련 국회 정책토론회 등에서 비공식 출마 의사를 밝힌터라 최소 4~5파전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

이현승 전 대표는 이번 출마의 변을 통해 “한마디로 금융투자협회의 존재 이유는 회원사의 성장과 가치증대에 있다”며 “‘맞춤형 소통’을 통해 회원사의 니즈와 고충을 파악하고 ‘즉시 소통’을 통해 신속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이현승
전 SK증권·KB자산운용 대표

회원사들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진정한 대변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형증권사들의 숙원사업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종합투자계좌(IMA)의 조속한 도입 지원과 중소형 증권사들의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규제 개선, 중소형 증권사, 운용사, 신탁사, 선물사들의 비용 절감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고령화와 저성장 위기를 경고했던 이 전 대표는 해법이 바로 자본시장 활성

화에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이번 금투협회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라고 설명한다.

이 전 대표가 구상 중인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는 ▲경직된 규제 환경 개선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디지털자산시장 활성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주장이다. 특히, 금융사의 신규사업 진출 시 사업과 무관한 제재 이력으로 인해 신사업 진출이 어려워지는 불합리한 연계 제재를 폐지할 방침이다.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없애 경쟁력 있는 자본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부처 간의 일관성 부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는다. 기획재정부의 국고채시장 활성화를 위해 참여했던 증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국고채 프라이머리 딜러를 둘러싼 담합 조사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처지에 놓인 것은 대표적 사례다. 디폴트유

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500조원 규모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고, 국민의 안정된 노후 보장으로 이어지게 할 예정이다.

그는 분리과세 대상을 주식에서 펀드까지 확대하고, 분리과세 세율을 배당 메리트를 제할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시장에만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소액주주들에게 적용하는 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IT인프라나 소비자 보호 기반이 잘 마련된 금융투자 업계가 디지털 자산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토큰형증권(STO),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스테이블 코인 등 혁신 금융상품의 조속한 도입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이 자본시장에서 얻는 수익이 ‘제2의 월급통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고, 연기금의 수익률을 높여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며,

혁신기업의 자본조달을 촉진하는 생산적 금융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며 “고령화와 저성장의 위기를 타개하는 데 자본시장이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가 회원사들과 함께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행정고시(32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에 공직생활 시작했다. 메릴린치증권을 거쳐 SK증권, 코람코운용, KB자산운용 등에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를 16년간 역임한 자본시장 전문가로 꼽힌다. 특히 민과 관, 증권사와 운용사, 대형사와 중소형사, 외국계와 국내기업을 모두 거친 보기 드문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다양한 업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정책당국과의 원활한 소통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이다.

한편 서유석 현 금투협회장,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사장, 박정림 전 KB증권 사장 등이 17대 금투협회장 후보로 마하평에 오르고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2030년 수출 4500억弗 목표 ‘소부장 강화’

구윤철 부총리, 소부장 기본계획
혁신·시장·생태계 역량 강화 골자
무역수지 흑자 목표액 1500억弗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계획을 추진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인공지능(AI), 탄소중립 등 산업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혁신·시장·생태계 역량 강화가 골자다.

정부는 23일 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소부장 수출액을 지난해 3637억 달러에서 2030년 4500억 달러로 확대하고, 무역수지 흑자를 1125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로 늘리며, 생산액 1350조 원 달성이 목표다.

기본계획은 ▲도전기술 개발 및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및 내수 신시장 창출 ▲수요·공급 기업 모두가 성장하는 3대 협력 방안 추진 등 세 가지 전략으로 추진된다.

기술 분야에서는 모방형에서 선도형 체질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시장 선점형 첨단제품, 범용제품 고부가, 탄소중립 대응,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등 4대 도전기술 개발에 집중한다.

정부는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옴 기업’을 100개에서 200개로 늘리고, 2030년까지 15대 슈퍼 을 프로젝트를 추진해 장기 R&D와 사업화 투자를 지원한다. AI와 R&D 결합을 통한 혁신 속도 가속화도 목표로, 소재 데이터 1500만 건 확보, 공공 AI 플랫폼 개방, 초고온·극저온·초고압 등 극한환경 적용 소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시장 역량 강화도 핵심 과제다. 한미·조선 협력, 인도 반도체 프로젝트(ISM) 등 주요 수출국 산업 프로젝트와 연계한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하며, AI·양자·방산·재생에너지·항공·드론 등

핵심 분야는 공공부문 선제 투자로 내수 신시장을 창출한다.

수요·공급기업 협력 강화 전략도 마련됐다. 기존 1차 협력 중심 구조를 다수 기업 참여 N차형 모델로 확대하고, 반도체 유통기관 등 차세대 전략 품목은 대형 협력 모델을 구축해 기술 성숙도에 맞춘 R&D·실증·투자 지원을 제공한다.

투자 확대를 위해 소부장 특별회계, 융자·지분 투자 연계, 첨단산업기금·공공출자펀드 등 마중물 투자도 확대한다. 국내 생산이 가능한 품목에는 적극 지원, 부족한 품목은 대체 수입처 발굴과 핵심광물 비축·재자원화를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고, 소부장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2030년 수출 4500억 달러, 무역수지 1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수정·보완 가닥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폐지, 부담스러워… 신중 검토중”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가 당장 폐지보다는 수정·보완 쪽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조기에 주간 동향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간 동향 조사는 하되 공

표하지 않는 방법,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방법, 주간 동향 대체 수단을 강구하는 방법 등을 놓고 내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통계 정확성 논란이 일자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서 한국부동산원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통계에 투기 심리가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통계에 실거래가와 호가가 혼재돼 적용되는 점이 주된 문제로 제기돼 왔다. 한국부동산원은 실거래가가

충분한 지역은 이를 기반으로 통계를 작성하지만, 거래가 적은 지역은 인근 시세나 중개업소 의견 등을 추가 반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심리가 국가 통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조사 폐지와 수정·보완을 둘러싸고 다양한 여야 의견이 오갔다. 먼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과의 질의 과정에서 “지금의 주간 통계는 투명성도, 정확성도 없다”며 “세상 어느 나라에도 투기꾼을 위한 통계는 없다. 불투명한 통계를 계속 발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비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3일 오전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열린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합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인천플랜 채택… 정책공조 중요성 재확인”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 회견
구윤철 부총리 “번영 공동성명 채택
역내 구조개혁 정책추진 기반 마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의 성과와 관련해, 의장국으로서 주도적 아젠다를 제시하고, AI 시대 경제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새 협력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회의는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인천에서 열렸다.

구 부총리는 23일 오전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리조트에서 열린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합동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첫째 날 열린 재무장관회의에 대해서는 “세계와 역내 경제전망, 혁신, 디지털 금융, 재정정책 등을 주제로 열린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고, 이를 토대로 공동성명과 ‘인천플랜’을 채택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인천플랜은 향후 5년간 APEC 재무장관회의의 논의방향과 주제를 담은 중장기 로드맵”이라고 했다. 또 “혁신, 금융, 재정정책, 접근성과 기회 네 개 주제로 구성돼 있으며, 한국이 제안한 AI 대전환과 혁신 생태계 조성, 그리고 모두에게 고른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재무트랙 최초로 주요 의

제로 포함시켜 논의의 외연을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요국 통상정책, AI 기술패권 경쟁 등 글로벌 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인천플랜 채택을 통해 역내 정책공조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내년 의장국인 중국을 포함해 향후 5년간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은 인천플랜이 제시한 우선순위 내에서 의제를 자발적으로 선택해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틀~사흘차에 열린 구조개혁장관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AI 등의 디지털 기술혁신,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 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구조개혁의 역할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역내 시장·기업환경 개선, AI 및 디지털 전환 촉진, 경제적 참여 확대를 통한 번영 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과 두 개의 부속서를 채택해 역내 구조개혁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했다.

그는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21개 APEC 회원이 만장일치로 이루어 낸 합의여서 그 의미가 더 크다”며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성과와 논의의 흐름이 정상회의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이 총재, 인하 속도·폭 조정 시사 잠재성장률 훼손 등 리스크 경계

한은 기준금리 동결

금통위원 속도조절 기류 강해져
6명 중 4명, 3개월 내 인하 전망
이창용 총재 “데이터 기반 결정”

“인하 가능성과 동결 가능성을 제시한 금통위원의 수가 5:1에서 4:2로 변화했다. 기준금리의 추가인하 시기와 폭 등은 앞으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해 나가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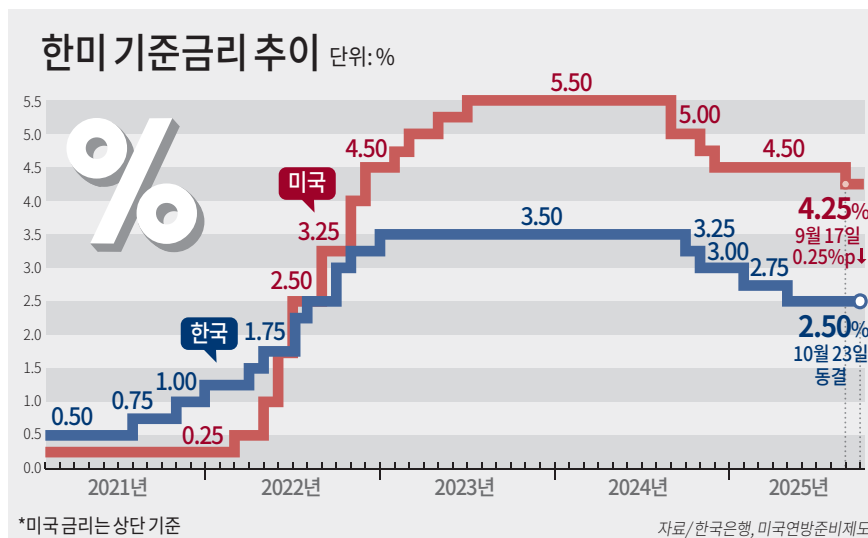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통화정책방향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인하 기조는 유지하되 속도·폭은 조정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를 유지하기로 했다.

◆ 이창용 총재 “금리만으로 부동산 가격 조절할 수 없어”

이창용 총재는 국내 물가가 9월 2.1% (근원 2.0%)로 안정 흐름을 보였고 수요 압력 둔화·유가 안정 등을 감안하면 당분간 2% 안팎 등락이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9월 하순 이후 환율·금리의 변동성이 커졌고 원·달러가 1400원대 초반으로 높아지는 등 금융안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택 측면에선 수도권 가격·거래가 다시 크게 확대된 만큼 정부의 추가 대책 효과를 면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 총재는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외여건은 관세 인상 영향 등으로 세계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 물가는 국가별로 차별화될 가능성이 크다. 11월에는 한·미 및 미·중 무역협상, 10월 FOMC, 반도체 경기 등 변수가



한꺼번에 몰려 성장 경로 판단에 결정적일 전망이다.

이 총재는 “여러 리스크 전개를 좀 더 점검한 후 기준금리 추가인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가계와 관련해 금리만으로 부동산 가격을 조절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가격이 내려야만 안정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거래·기대 변화까지 종합 판단하겠다”고 했다. 다만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수준이 높다”고 했다.

자산시장의 활황에 대해선 광의 통화(M2) 확대의 상당 부분이 과거에 쌓인 유동성 이동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주가는 과열로 보기 어렵지만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잠재성장률 훼손을 우려했다.

한은은 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하되 서두르지 않는 쪽에 방점을 찍었다. 물가 2% 안팎의 흐름 아래 소비·수출 개선이 이어지는 동안 주택·환율 등 금융안정 변수와 대외 이벤트를 보며 데이터에 근거한 속도조절을 이어가겠다는 것.

향후 3개월 금리 방향을 묻는 ‘포워드’는 지난 8월 인하 5명, 동결 1명에서 이번 10월엔 인하 4명, 동결 2명으로 바뀌었다. 인하가 우세하긴 하지만 동결 의견이 늘어 속도조절 기류가 강해졌다.

이 총재는 “저를 제외한 6명 중 4명은 2.5%보다 낮은 수준의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고 2명은 3개월 후에도 2.5% 유지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환율에 대해 이 총재는 “특정 수준을 타깃하지 않는다”며 변동성 완화를 정책의 초점으로 제시했다. 최근 한 달 원·달러 상승분에 대해선 “약 4분의 1은 달러 강세, 4분의 3은 역내 요인(위안·엔 약세, 관세·대외 불확실성, 한국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등)이 컸다”고 분석했다.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원화에 우호적일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다음 회의 전 관전 포인트는 ▲부동산 대책의 시장 안정 효과(가격·거래) ▲원·달러 및 국고채금리 변동성 ▲소비·수출 지표의 ‘완만 개선’ 지속 여부 ▲무역협상·FOMC의 향방 등이 꼽힌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APEC 정상회의의 관전 이달말 극적타결 관측도

韓美 관세협상

투자방식·수익배분 막판 줄다리기
구윤철 부총리 “혼합 설계 우선”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이어진 한·미 관세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측 실무진은 쟁점으로 남겨진 후속협의를 위해 워싱턴 D.C.를 바빠 오갔고 진전이 꽤 있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3500억 달러(503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과 관련한 접점 찾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최근 미국 CNN과 가진 인터뷰에서 “시간이 좀더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서명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양국 간 이어진 실무진 대면협상이 이번 주 끝났음에도 이 대통령의 답변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APEC 일정이 임박했음에도 트럼프의 속내·행보는 알 길이 만무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다만 “(한미 관세협상은) 결국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결과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왜냐하면 우리는 동맹국이고 상식 및 합리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APEC 계기 타결 전망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극적 타결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공개된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이 통화스와프보다는 3500억 달러 투자 구조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등 미국 당국자들도 대규모 선(先)투자 방식이 한국외환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베센트 장관이 한국 외환시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도 했다.

이어 “한국은 이번 투자 패키지의 균형 잡힌 구성, 즉 직접투자·대출·보증이 혼합된 형태의 설계를 우선시하고 있다”며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구성비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양국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 정상 간 큰 틀의 합의를 이뤄냈지만,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을 두고는 이견을 이어나가고 있다. 관세협상의 최종 타결이 미뤄지면서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한국은 이 같은 불리함을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 관계자들에게 여러 차례 제기했다, 그러나 미국이 그다지 수용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협상단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투자 약속의 외환시장 영향에 대한 우려는 원화 약세 흐름 속에서 제기되고 있다. 구 부총리는 환율 불안과 관련해 “최근 원화 약세는 대미투자 협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한 것”이라며 “관세 문제가 해결되면 불확실성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 재무부 관계자들은 원화 약세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국 당국이 의도한 조치라고 여기지 않는다”며 “한국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해양산업 키운다’… 동남권, 지역경제 새 활로 모색

〈부산·울산·경남〉

금융의 미래

BNK 금융그룹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스마트폰을 앞세운 모바일혁명의 ‘대전환’이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인공지능(AI) 회사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와 이세돌 바둑9단의 바둑대결을 계기로 AI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이후 전 세계는 AI의 발달에 힘입어 디지털전환(DX)의 바람이 기업을 중심으로 거세게 불기 시작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바이오산업의 중요성과 함께 사회 전반에는 비대면 문화가 확산됐습니다. ‘대전환시대’의 도래입니다. 〈메트로경제〉는 이 같은 대전환기를 맞아 ‘생존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대한민국 전환기의 핵심동력인 우리 기업들의 노력을 집중 조명합니다. 〈편집자주〉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3월 창립 14주년 기념사에서 “지역 고령화, 장기 경기침체, 수도권 일극 체제의 폐해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BNK금융이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자 새로운 성장으로 가는 교두보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BNK금융그룹은 최근 거점지역인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내 핵심산업 투자 비중을 늘리고, 벤처산업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지역 인구가 감소하고 산업이 유출되는 지방소멸 흐름 속에서 지역과의 동반 성장을 통해 성장 한계를 극복한다는 목표다. 대구·경북에 거점을 둔 iM금융(옛 DGB금융)이 시중금융으로 전환해 전국구 영업을 본격화하고, 광주·전북·전남에 거점을 둔 JB금융이 수도권 진출과 플랫폼 영업을 통해 영업을 확대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 지역과 동반 성장… ‘해양수도권 조성’

BNK금융은 지난 7월 ‘해양금융’에 중심에 둔 하반기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BNK금융지주에는 사령탑 역할을 맡을 ‘해양도시전략팀’을 신설해 계열사의 전략을 지휘하는 한편, 계열사인 BNK부산은행에서는 투자그룹을 해양·IB 그룹으로 재편해 해양산업 비중을 확대했다. 지난 6월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첫 삽을 뜬 정부의 동남권 ‘해양수도권 조성’ 목표에 발맞춘 전략이다.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6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결정을 시작으로 동남권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

‘해양수도권 조성’을 추진 중이다. 해상 운송에 특화된 부산, 조선업·해상플랜트업에 특화된 울산·경남을 연결해, 북극항로 시대에 걸맞은 경쟁력을 갖춘 광역도시권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BNK금융은 명실상부한 동남권 지역 내 주요 금융기관이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각각 부산과 경남 지역 내에서 30% 안팎의 대출·예금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 점포 수도 주요 은행 가운데 가장 많다. 또한 부산은행은 부산시, 경남은행은 울산시·경남도의 금고 은행을 겸하는 등 지자체와의 연계 수준도 높아, 정부의 해양수도권 전략에 따른 성장 잠재력도 높다.

지역소멸 위기 속 산업유출 가속 해수부 부산이전 맞춰 해양금융 강화 부울경 연결한 해양도시 전략 추진 해양·벤처산업 자금지원 본격화 미래산업 투자로 성장동력 확보

BNK금융은 지방금융 특유의 중소기업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 내 중소기업 대출 공급을 늘리는 한편, 지역 내 공공기관과 연계해 해양기업 특화 상품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지난달에는 1조원 규모의 ‘BNK힘찬도약펀드’를 조성해 지역 내 핵심산업·벤처사업 기업을 위한 유동성 공급에도 돌입했다.

◆ 해외진출 속도… ‘글로벌’ 금융그룹 목표

BNK금융은 지역과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한편 해외 진출도 속도를 낸다. 높은 경제 성장을 지속 중인 동남아시아 시장은 물론, 국내 금융회사의 진출이 미진했던 중앙아시아 시장에서도 판로를 확대 중이다. 앞서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은 “지역 기반의 초일류 글로벌(Glocal·Global+Local) 금융그룹”을

그룹의 경영 전략으로 제시한 바 있다.

아시아 신흥국 금융시장은 위험도가 높지만, 매출 및 성장 잠재력이 큰 ‘블루오션’으로 여겨진다. 시장 금리가 5% 이상으로 높게 형성됐고, 연체 가능성이 크지만 이자도 높게 형성되는 소액금융 시장의 수요도 활발해져서다. 특히 BNK금융은 현지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현지의 기업과 개인에도 금융상품을 적극 공급하는 등 영입이 활발하다.

BNK금융의 해외 진출 선봉은 BNK캐피탈이 맡고 있다. BNK캐피탈은 금융 수요가 높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 소액금융(마이크로파이낸스 및 리스) 자회사를 운영 중이다. BNK캐피탈이 두 국가에 운영 중인 점포 수는 모두 63곳에 달한다.

아울러 BNK금융은 지난 8월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 알마티에서도 ‘BNK 카자흐스탄 은행’을 출범했다. 국내 금융사가 카자흐스탄에 출점한 것은 신한금융에 이어 두 번째다. BNK캐피탈도 국내 민간금융사로는 유일하게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에서 동시에 영업 중으로, BNK금융은 국경을 맞댄 세 나라를 연결하는 금융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BNK표 ESG… ‘지역과의 동행’

BNK금융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목표는 ‘지역사회의 진정성 있는 동반자’다. BNK금융의 거점인 부·울·경 지역과의 동반 성장을 추구하고, 지역 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의 지속가능한 이익과 미래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BNK금융은 지난해 계열사별로 운영했던 사회공헌 사업을 통합한 ‘BNK 사회공헌의 날’을 제정했다. BNK금융은 사회공헌의 날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 등 기존의 사회공헌 활동 뿐만 아니라 산불·수해피해 복구 등 지역사회



부산 남구 BNK부산은행 본점.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BNK금융은 은행 계열사를 통한 전통 시장·지역상권 부흥을 위한 지역화폐 보급에도 앞장선다. 부산은행은 동백전(부산), 경남은행은 울산페이(울산)와 누비전(창원)을 각 지자체와 협업해 유통하고 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각 지역화폐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카드나 앱 만으로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인프라도 구축했다.

라오스·캄보디아 시장공략 가속 중앙아시아 3국 금융망 구축 지역화폐 보급·상권회복 지원 ESG교육으로 중소기업 전환 지역 상생으로 지속가능 성장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ESG 전환도 지원한다. BNK금융은 지난 2024년부터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ESG 인재양성교육을 운영 중이다. 국제 표준에 알맞은 ESG 동향 교육은 물론, 산업재해 예방 교육과 기업 내 위험요인 진단 서비스도 제공한다.

BNK금융은 지역 스포츠에 대한 지원도 지속 중이다. BNK금융은 지역 프로야구 구단인 롯데자이언츠와의 스폰서십을 장기간 지속하고 있으며, 부산은행은 여자프로농구 부산BNK썬을 지원한다. 또한 BNK금융은 지방금융 최초로 부산 지역에 연고지를 둔 이스포츠(E-Sports) 게임단인 BNK FearX(피어엑스)도 후원 중이다.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은 “BNK금융은 고객에게는 더욱 신뢰받고, 지역사회에는 진정성 있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해 지역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여정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조한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오른쪽 다섯번째)과 관계자들이 BNK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 개소를 축하하고 있다. 개소식에는 BNK금융 관계자뿐만 아니라 현지 금융당국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BNK금융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나에게 이로운 AI, 없을까?”

라는 당신의 고민에
한번 더 생각합니다.

거창하고 어렵기만 한 AI가 아닌.
고객의 일상에 손쉽게. 쓸모 있게.

은행이 아니라, 나에게 이로운 AI를.

나에게 이롭게. 나에게 AI롭게.

나에게 이롭게

모두에게 쉽고 편리하게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신한은행 AI 은행원

서울 중구 서소문(시청역 9번 출구)에 위치한 AI 브랜치는
AI 기술을 적용한 금융 업무를 통해 고객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

-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신한은행 고객센터(1577-8000, 평일9시~18시/주말 및 공휴일 휴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사인사전심사필 제2025-11231-1호 (2025.03.26~2027.03.25)

명태균 “오세훈에 빛 받으러 왔다… 같이 일했는데 고발”

2025 국감

명태균,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미공표 여론조사 13차례 실시 주장 내달 8일 대질신문 예정에 말 아껴 황금폰 포렌식에 관련 내용 나와 오세훈 ‘2번 만남’ 거짓… 7번 만나

2023년 10월부터 정치권에 등장했던 이름, ‘명태균’ 씨가 23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타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났다. 명씨는 이 자리에서 “오늘 오세훈에게 빛을 받으러 왔다”고 말했다.

명씨는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했으며, 비용은 오 서울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가 대납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오 시장 측은 명씨의 부정 여론조사 수법을 확인하고 관계를 끊었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명씨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오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옆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자리에서 앉았다. /뉴스1

세훈이 거짓말쟁이인지, 내가 거짓말쟁이인지 오늘 보면 안다”면서도 “대질신문이 예정돼 있어 국감에서 다 말을 하면 (오세훈측이) 다 대비를 하기 때문에 다 말은 못하고, 오늘은 오세훈이 떠든 것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내달 8일 대질신문을 할 예정이다. 그는 “(20개 혐의 등에 대한 것은) 대질신문 후 페이퍼로 나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명씨는 오 시장과 관련한 20개 혐의를 국감장에서

제시하겠다고 했으나, 특검 대질신문에 대비해 이날은 말을 아끼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명씨는 국감장에서 오 시장을 겨냥해 날선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교도소에 구속돼 있었는데 오 시장이 저를 고발했다. 저는 지금도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를 고발한 게 한 개도 없다”며 “같이 일을 하면서 도왔는데 쫓쫓하게 고발을 한다”고 말했다.

명씨는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 제공과 관련해 오 시장과 주고받은 객관적 증거

가 있는 질문에 “주고 받은 게 있다”면서 “황금폰 포렌식을 하는데 오세훈 관련 내용들이 다 나온다. 오세훈 시장이 저를 2번 만났다, 내쫓았다 (하는데), 거짓말이다. 7번 만났다”고 밝혔다.

반면 오 시장은 명씨 발언에 대해 “답변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5월에 검찰에 대질을 강력하게 주장했었는데 안 됐고, 이번에 특검에서 받아들여졌다”며 “제가 대질에서 밝히고 싶은 것

들이 많다. 여기에서 밀전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명씨는 계속 주장을 이어갔다. 명씨는 오 시장과의 만남에 관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여의도에 갔을 때 김영선 의원이 오세훈을 소개시켜주려 하기에 제 얼굴이 배신·배반 형이어서 안 만나겠다고 도망을 갔다”며 “김영선 의원이 오세훈 시장을 만날 것을 독려했다. 그래서 중국집에 갔다가 광진구 구의동 쪽에서 12월 9일에 오세훈을 만났다”고 답했다.

그는 또 “처음으로 서울 가는 버스를 타고 고속버스터미널에 와서 2호선 타고 온다. 거짓말할 게 뭐가 있나. 문자, 카톡 다 나와 있는데”라며 “당협 사무실에서 만났고 김종인도 만났다. 27일 청국장 집에서 만났고, 31일 또 청국장 집에서 만났고 조은희도 만났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11월 8일 오전 10시에 오 시장을 소환해 명씨와 대질신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5월25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은 처음이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APEC정상회의, 냉전 장벽 넘은 서울올림픽처럼 새 장 열어내야”

李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APEC 정상회의 준비 총력 지시
美中·北美 정상회담 가능성에
‘신냉전’ 정세 해소 염원 드러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준비와 관련해 “전후 80년인 올해 세계질서는 탈냉전 이후에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는 냉전의 장벽을 넘었

던 서울올림픽처럼 세계가 다시 상생과 협력의 지혜를 모아나가는 새 장을 열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APEC 정상회의의 준비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오는 31일 개막하는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의장국으로 처음 주최하는 다자외교 행사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인공지능 전환, 인구구조 변화 같은 인구 공통의 도전 과제를 다자주의 협력으로 극복할 수 있도

록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겠다”며 “관계 부처는 정상회담 준비 마무리에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 2강의 정상이 방한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긴 회담을 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미중 정상이 우리나라에서 악수하는 모습이 연출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의 대화도 언급하면서, ‘깜

짝’ 북미회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도 1988년 열린 서울올림픽을 언급한 것이다. 현재 국제정세는 ‘신냉전’ 상태라 할 수 있는데, 이번 APEC을 기회로 삼아 신냉전을 해소하길 바라는 염원을 드러낸 셈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K-방산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요 방산 기업의 수주 잔고가 올해 상반기 기준 100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며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대적 예산 투자와 과감한 제도 혁신, 그리고 긴밀한 글로벌 연대를 바탕으로 세계방위산업의 미래지도를 우리 손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며 “남에게 기대지 않고 자주적 방산 역량을 확고히 해야 우리 손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리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서예진 기자

韓美 관세협상 서명 가능성에 “상당히 많은 시간·노력 필요”

李 대통령, 美 CNN 인터뷰 진행
APEC 계기 타결 가능성 낮게 봐
“합리적 합의 이르게 될 것이라 생각”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가능성에 대해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시일이 더 걸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개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미 통상 협상 타결 가능성에 이같이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APEC을 계기로 오는 29일부터 1박2일 방한하며 한미 정상회담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이때 한미 관세협상의 MOU가 서명까지 이뤄질 가능성을 낮게 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 CNN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다만 해당 인터뷰는 전날(22일)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니 미국 상무부 장관과의 3500억 달러 대미투자 협상을 진행하고 지난 19일 귀국한 이후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이 조정·교정 필요성을 언급한 셈이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미국의 합리성을 믿는다”며 “두 나라가 합리적인 합의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미국의 3500억달러 ‘현금 투자’ 요구가 무리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끝까지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서예진 기자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사적이익 취해”

李 대통령 “민주주의·법치주의 파괴
법·원칙 따라 엄정 처리하고 단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의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 확립에 쓰라고 맡긴 공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4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이 그 실상을 보고 참으로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며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

고 잘못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하겠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사정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온 것이고, 오로지 주권자를 위해, 주권자의 통제와 감시 아래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히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사정기관 공직자들의 공적 권한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소금과 같은 최후의 보루”라며 “특정한 사적이익을 위해서 기강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데 (공적 권한을)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모든 공직자가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최소한 지금 이순간부터는 공적 권한을 남용해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AI 이름에 K를 붙였다는 건
우리 소상공인의 힘이 되겠다는 것
KT가 AI 시대를 이끌어갈 한국적인 AI
K intelligence를 시작합니다
당신이 바라던 매일이 펼쳐지도록

K라는 이름이 가장 빛나게

K intelligence



KT 사장이지

소상공인에 특화된 AI가 다양한 장사 고민 해결을 도와드리고,
매장 운영에 필요한 KT의 소상공인 솔루션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K intelligence : KT가 만들어갈 AI상품 / 서비스를 통칭하는 새로운 AI Master Brand 입니다

kt, 당신과 — 미래 사이에

주요국 車 보험료 올리고 관행 손질 韓 요율 신호 불통에 손해율 상승세

자동차보험료 물가지수 내리는데
수리비 지수 상승률은 2.1% 유지
올해 들어서도 고손해율 구간 지속
요율·정비·보상 동시 조정 필요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정비부품·공임·대차료가 구조적으로 뛰자 주요국은 '요율 정상화+수리·보상 관행 개선'을 통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이 멈췄다. 반면 우리나라는 보험영업익이 적자로 전환하면서 가격 신호와 현장 프로세스의 동시 보정 없이는 손해율 안정이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3.3%, 사업비율 16.4%로 합산비율 99.7%까지 높아졌다. 차보험손익은 302억원으로 전년 동기(3322억원) 대비 90% 급감했다.

지난 8월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6.7%로 작년 동월 대비 2.6%포인트(p) 상승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손해율은 84.4%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p 상승하면서 고손해율 구간이 이어지고 있다.

가격과 비용의 미스매치 역시 누적됐다. 2022~2024년 자동차보험료 물가지수는 -1.0%→-2.0%→-2.8%로 하락했지만 자동차수리비 물가지수는 같은 기간 3.8%→5.2%→2.4%로 올랐다. 2025년 7월에도 수리비 지수 상승률은 2.1%를 유지했다. 손해액 추세와 요율 신호가 어긋난 결과가 현 손해율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Chat GPT가 생성한 주요국 자동차보험 이미지.

자동차수리비 상승이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지속될 전망에 따라 주요국들은 보험료 조정과 수리비 절감을 위한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실제로 주요국의 자동차보험료 조정률은 2023년 영국은 45%, 미국은 17% 이상, 2024년 독일은 18%, 프랑스는 5% 이상 높아졌다.

수리비 절감을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는 2025년 7월 'Write it Right'(견적·부품 고지 강화)와 '분해 견적' 규정을 시행했다. 정비업체는 작업 승인 내역과 수리·부품 기록을 문서로 제공하고 중고·재생부품 포함 시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충돌 수리 시에는 항목·부위별 분해 견적서와 재조립 비용·인건비·부품비·최대 재조립 소요 시간까지 포함한다. 요율과 정비·보상 규칙을 '패키지'로 손본 셈이다.

유럽은 부품시장 구조와 수리 관행을 직격했다. 독일은 지난 2020년 11월 범퍼·펜더 등 외장 부품에 디자인보호 예외 조항을 도입해 대체부품 사용을 넓혔다. 프랑스도 '수리조항'을 통해 재생·중

고부품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법을 정비했다. 영국은 공급망 회복, 대체차량(렌탈) 프로세스 정비, 디지털 워크플로우 도입으로 평균 수리기간(cycle time)을 크게 줄였다.

국내의 경우 2024년 영업수지 적자 전환에 이어 2025년에도 손해율 상승이 이어지는 만큼 주요국의 사례처럼 감독·당국·업계가 요율·관행·부품시장까지 '패키지'로 손보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요국은 자동차수리비 증가에서 비롯된 손해율 상승과 보험영업이익 적자에 대해 보상 및 차량수리 관행 개선, 자동차보험료 조정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다르게 코로나19 이후 영업수지 흑자를 기록하다 2024년에 영업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는데 자동차수리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에 대한 감독당국과 보험업계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내일부터 실손24 앱에서 보험금 청구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시행
부모 대신 자녀 등 제3자 청구 가능

오는 25일부터 실손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병원 창구에 방문할 필요 없이 실손24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험회 등 유관기관과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2단계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시행된 1단계 실손 청구 전산화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의원과 약국으로 확대돼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설명이다.

우선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손24 앱을 내려받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한다.

보유한 실손보험 계약 확인과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앱에서 회원가입 후 보험계약 조회 선택→병원 선택→진료 일자 및 내역 선택→

청구서 작성(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 처방전)→청구 내용 확인 및 전송을 하면 청구가 완료된다.

실손24에서 연계된 요양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네이버 지도, 카카오 앱에서 실손24로 검색하면 연계된 요양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요양기관이 연계돼 있지 않은 경우 '참여 요청하기' 기능을 통해 실손24에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제3자 청구기능을 활용해 고령층 부모를 대신해 자녀 등 제3자가 보험금 청구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 나의 자녀 청구 기능을 통해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보험금도 청구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요양기관과 EMR 업체의 실손24 참여를 독려하고 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의 청구전산화 이용 불편 사항을 지속 점검해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지난 22일 하나금융그룹의 수어교육에 참여한 그룹 임직원들이 포즈를 취했다.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장애인 인식 제고 앞장

‘임직원 수어교육’ 실시

하나금융그룹이 '임직원 수어교육'을 실시한다.

'임직원 수어교육'은 청각장애인의 공식 언어이자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인 수어(시각언어)를 배움으로써 청각 장애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포용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하나금융은 농(農)문화와 농(農)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2023년부터 정기적인 임직원 수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수어교육을 포함해 누적 270여명의 그룹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며 청각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의사소통 장벽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이번 수어교육은 청각 장애에 대한 기본 이해와 함께 '경제'와 '대화'라는 주제로 일상 속 기본 어휘와 표현을 학습하며 자원봉사 등 농인(聾人) 대면 시 실제 의사소통에 활용 가능한 용어와 문장 등의 실용적 수어를 익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하나금융 ESG 상생금융팀 관계자는 23일 "장애에 대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 청각 장애를 가진 분들과 실제로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실용적 수어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되는 통합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포용문화 확산 노력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채무상속 미성년자 채무조정대상 포함

신복위,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

앞으로 금융지식이 적어 부모 등으로부터 채무를 상속받으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청산형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채무조정 후 성실히 상환하면 면책해주는 제도도 면책 금액을 15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신복위는 청산형 채무조정을 확대한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중 채무 조정을 통해 원금을 최대 90% 감면받고 3년 이상 상환한 자는 채무 원금 합계 금액(1500만원 이하)에 한해 잔여채무를 면책했다. 앞으로는 지원 대상 금액을 15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미성년자가 금융 지식이 적어 부모의 채무를 상속받은 경우 청산형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나유리 기자 @

대출규제·인구감소 ‘이중고’ 성장 한계 온 지방 저축은행

지역 내 의무 여신비율제도 적용
인구 감소 빨라져 맞추기 어려워

지방 저축은행이 대출 규제로 성장 담보 상태에 빠졌다. 인구 감소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을 맞추기 어려워지자, 일부는 타 지역 여신을 줄여 비율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역 소재 저축은행이 지역 내 의무 여신비율제도 40% 규정을 따르기 위해 타 지역 여신을 줄이고 있다. 인구 자체가 감소해 영업 지역 내에 대출받을 차주가 줄어들자, 규제 비율을 맞추기 위해 전체 여신 규모를 줄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총 6개 영업구역으로 구분된 저축은행은 지역 내 의무 여신비율제도 규제 적용을 받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50%, 지방의 경우 40% 비율에 맞춰 개입 및 중소기업 대상 대출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해당 규제는 14년째 지속돼 왔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1년 지방 소재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영업 내 의무여신비율을 50%에서 40%로 완화한 바 있다. 당시

에도 인구 감소 현상 및 비대면 업무 증가로 해당 비율을 맞추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규제 비율을 완화했다.

문제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 문제가 더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는 인구가 거의 없다. 애초에 발원 차주가 없기 때문에 지방은 규제 비율을 맞추기 어렵다"며 "지방 저축은행 성장이 담보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일부 지방 저축은행은 규제 비율을 맞추기 위해 타 지역 여신 비율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은 비율을 맞추기 위해 다른 지방 여신을 줄였다"면서 "다른 지방 여신을 줄여 전체 여신 규모를 줄이면 영업권역 내 여신 비율을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저축은행 총여신 감소세는 지방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충청권역 소재의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경우 총여신이 지난해 2분기 1조 1413억원에서 올해 2분기 8771억원으로 2642억원 줄어들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中 12조 투입해 OLED 증설 가속 삼성·LG, 8.6세대 ‘방어전’ 돌입

韓·中 OLED 주도권 격돌

中, LCD 수익 OLED로 재투자
8.6세대 CAPA 확장 본격화

삼성, 아산 공장 선제 구축
LG, RGB 탠덤 기술로 대응

중국이 정부 보조금과 액정표시장치(LCD) 시장에서 확보한 수익을 바탕으로 성장성이 부각되는 8.6세대 IT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라인 증설에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선제적으로 투자에 나서며 시장 주도권을 지키는 모습을 띠며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모니터·노트북에 탑재되는 IT용 OLED 패널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모니터용 시장조사업체 옴디아는 OLED패널이 전년 대비 60.9% 증가할 것으로 진단했다. 노트북용 OLED패널 또한 전년 대비 45.9%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모니터용 OLED 패널 출하량은 지난 2021년 약 8300대, 2022년 16만대, 2023년 약 82만대, 지난해 약 200만대로 빠르게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글로벌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IT OLED 시장 성장세에 힘입어 8.6세대 신규 공장에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8.6세대급은 기존 6세대급보다 원장(마더글라스) 면적이 커 패널 생산량을 두 배 이상 늘릴 수 있다. 전 세대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OLED 패널을 생산해 제조단가를 낮추려는 전략이다.

중국 1위 디스플레이업체 BOE는 약 12조 4000억원을 들여 2026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IT용 8.6세대 OLED 생산



삼성디스플레이 아산1캠퍼스 전경.

/삼성디스플레이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또 내년 4분기에 IT용 OLED 라인(B16)의 2단계 라인용 첫 번째 증착기를 추가반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에는 8.6세대 OLED 패널 생산 라인에 선익시스템 8.6세대 증착기 2대를 배치해 약 1만 5000장규모의 월 생산량을 확보한 바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업계에서는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사에 8.6세대 OLED 패널 생산능력(CAPA)이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사를 앞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내 업계도 격차를 좁히기 위한 대응 전략 마련에 한창이다.

특히 삼성디스플레이가 8.6세대 IT용 OLED 투자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2023년 충남 아산에 4조 1000억원을 투자해 8.6세대 IT용 OLED 패널 생산라인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2026년 3분기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내년 말 애플이 터치스크린 버전의 노트북 ‘맥북 프로’를 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삼성디스

플레이가 맥북 프로에 OLED패널을 독점 공급하는 것이 유력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가 8.6세대 공정 라인에 투자한 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따른다.

LG디스플레이는 8.6세대 OLED 신규 투자가 필요한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지난 6월 독자 기술 프라이머리 RGB 탠덤을 적용해 현존 최대 휘도인 1500니트를 달성한 ‘27인치 OLED 모니터용 OLED’패널을 지난 9월 본격 양산을 시작하며 급성장하고 있는 IT용 OLED 시장에 대응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주요 고객사인 애플에 대한 공급량을 늘리고, 내수 시장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어 8.6세대 설비 투자에도 비교적 리스크가 적다”라며 “IT용 OLED 시장에서는 여전히 국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앞서나 제품 품질과 생산 효율성을 강화해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HD현대중공업·미포 합병 주총 통과

12월 1일 공식 출범… 조선 명가 재편

통합HD현대중공업이 오는 12월 1일 공식 출범한다. 이번 합병은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조선이 각각 98.54%, 87.56%의 압도적 찬성으로 합병계약 체결안을 통과시키면서 본격 확정됐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는 23일 개최된 임시주총에서 ‘합병계약 체결 승인’ 안건이 국민연금 등을 포함해 각각 참석 주주의 98.54%, 87.56%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이같이 밝혔다.

양사는 지난 8월 K-방산 선도와 초격차 기술 확보, 시장 확대 등을 목표로 합병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계열사 간 기업결합으로 지배구조 변화가 없는 만큼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합병을 승인했다.

HD현대는 이번 사업 재편이 양적·질적 대형화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시장을 다변화하는 동시에 최첨단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통합법인은 치열한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절대적 경쟁우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통합 HD현대중공업은 방산 분야 경쟁력 강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기존 HD현대중공업의 합정 건조기술력에 HD현대미포의 도크·설비·인력을 결합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혀갈 계획이다. 또한 양사의 연구개발(R&D)과 설계 역량을 통합해 기술개발 리스크를 줄이고, 개발 기간과 비용을 단축함으로써 강화되는 환경규제에도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빙선 등 특수목적선 시장에서 양사가 보유한 실적을 통합, 신규 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할 전망이다. 통합 HD현대중공업은 이러한 시너지를 기반으로 2035년까지 매출 37조원(방산부문 10조원 포함)을 달성, 2024년의 19조원 대비 두 배 가까운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LG, ‘SDVerse’ 통해 전장 생태계 확장

GM·마그나 주도 글로벌 플랫폼 합류

LG전자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시대에 발맞춰 파트너십 확대를 위해 글로벌 차량용 소프트웨어 마켓플레이스 ‘에스디버스(SDVerse)’에 합류한다.

LG전자는 에스디버스 합류를 통해 글로벌 차량용 소프트웨어 생태계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전장 사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에스디버스는 제너럴모터스(GM), 마그나(Magna), 위프로(Wipro) 등이 주도해 설립한 업계 최초의 차량용 소프트웨어 오픈마켓 플랫폼이다. 완성차 업체(OEM)와 부품사(Tier-1),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어 자동차 업계 전반에서 소프트웨어 혁신을 가속화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LG전자의 전장사업을 담당하고 있

는 VS 사업본부는 에스디버스에 SDV를 위한 소프트웨어 솔루션 ‘LG 알파웨어’ 등 다양한 모빌리티 솔루션을 공개할 예정이다. 구매자는 에스디버스에서 품질기준 적용 여부 등을 손쉽게 확인하고 딱 맞는 소프트웨어만 상세히 비교해볼 수 있다. 해당 솔루션의 판매 담당자와 손쉽게 연락도 가능하다. 판매자의 경우 글로벌 탑티어 완성차 업체와 부품사들을 잠재적인 고객으로 둘 수 있고, 실제로 구매 의사가 있는 고객들만 집중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또 LG전자는 에스디버스에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완성차 고객 및 협력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더욱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통합·호환성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안정성 및 보안 향상, 운전자 경험 혁신 등 업계의 핵심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샤힌 완공 눈앞… 석화시장 ‘공급 폭탄’ 우려

TC2C 공법 기반 연 180만t 생산 임박
내년 가동 시 공급 구조 재편 불가피
감산 합의 속 업계 긴장감 고조

국내 석유화학업계 최대 규모인 약 9조원이 투입된 에스오일(S-OIL)의 ‘샤힌 프로젝트’가 공정을 85%를 넘어서며 이르면 내년 상업 가동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논의가 진행 중인 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샤힌 프로젝트는 에틸렌을 중심으로 연간 180만t 규모의 석유화학 제품 생산에 본격 나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울산 단지 내 나프타분해시설(NCC)을 운영 중인 대한유화(연 90만t), SK지오센트릭(연 66만t)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국내 최초로 TC2C 공법을 적용해 원유를 정제하지 않고 곧바로 화학제품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존 20~30% 수준이던 수율을 70%까지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생산 단가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내년 상반기 기계적 완공 후 시운전

을 거쳐 본격 가동되면 에틸렌 180만t, 프로필렌 77만t, 부타디엔 20만t, 벤젠 28만t 등이 생산될 예정이다. 이 중 에틸렌은 상당 부분이 폴리머 공정으로 연계돼 LLDPE 88만t, HDPE 44만t 규모의 폴리에틸렌 생산에 활용되며, 남은 기초유분은 국내 석유화학 다운스트림 업체들에 공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증설 규모가 구체화되면서 업계는 샤힌 프로젝트의 본격 가동을 마냥 반기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국내 공급 압력이 장기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추가 물량이 유입될 경우 수급 불균형 우려가 현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업황 부진과 구조조정 기조 속에서 설비 확대 움직임이 울산 지역 내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울산 석화단지는 실적 악화로 재투자가 중단된 상태이며 시설 유지·관리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샤힌 프로젝트로 생산되는 에틸렌의 양이 정부가 감축을 요구하는 270

만~370만t의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영향력은 더욱 클 것으로 관측된다. 생산을 줄여야 하는 업계 입장에서는 에스오일의 대규모 신규 생산 체계가 수급 조정 흐름에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샤힌 프로젝트의 생산량 조정 여부가 향후 업계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앞서 에스오일은 최대 370만t 규모의 NCC 감축을 골자로 한 석유화학 사업재편 자율협약에 참여했으며 지난달 30일에는 SK지오센트릭, 대한유화와 함께 울산 석화단지 재편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다만 에스오일은 현재로서는 생산량 조정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샤힌이 감축 대상으로 특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가동 시점이 다가오면서 감축 논의 과정에서 언급 빈도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울산 인근 화학사들은 공급 경쟁 압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어 체감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한화큐셀, AI로 데이터센터 에너지 혁신 제시

APEC CEO 서밋서 기조연설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이 ‘APEC CEO 서밋 코리아 2025’에 참여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센터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선보인다.

23일 한화큐셀에 따르면 박영춘 G&ES사업부장은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CEO 서밋에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울리 호만(Uli Homann) 부사장과 함께 ‘데이터센터 에너지 관리를 위한 인공지능(AI for Data-Center Energy Management)’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이들은 데이터센터 내 복잡하게 구성된 에너지 설비와 시스템을 AI가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해 최적 운용 체계를 구현하는 혁신적 에너지 관리 시스템

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근 한화큐셀은 미국을 핵심 시장으로 삼아 주택용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EV) 등 분산형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흐름에 맞춰 서비스형 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AI와 클라우드 기반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전력 자원을 통합·자동화하는 전력관리 소프트웨어를 공급함으로써 전력망(Grid) 안정화와 에너지 효율 제고, 재생에너지 가치 향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박영춘 G&ES사업부장은 “앞으로 에너지 시스템에 적극 적용될 AI가 단순한 자동화 도구에 머물지 않고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터(Orchestrator)’로 발전한다면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 향상은 물론 탄소중립 달성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맞춤형 설계해드려요”… 전차·무인기 등 미래 전장 수주전

르포

고양 킨텍스 ‘ADEX 2025’

한화 등 국내 주요기업 대거 참여
전시장 곳곳 ‘맞춤형·AI’ 내세워
각국 바이어들 기술 설명 경쟁

“해외 바이어들은 확실한 타격을 원한다. 그래서 재밍(전파 교란)으로 대응이 안 되는 경우엔 하드킬(직접 요격)로 잡을 수밖에 없어 그런 체계를 지원하고 있다. 맞춤형으로 설계 가능하며 진화하기 위해 계속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23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ADEX 2025’ 현장에서 만난 현대로템 관계자의 말이다. ‘맞춤형 전차’라는 표현은 이번 ADEX 2025 전시장의 흐름을 압축해 놓았다.

실제 전시장 곳곳에는 ‘맞춤형’, ‘인공지능(AI)’, ‘자율’이라는 단어가 도처에 새겨져 있었다. 각국 바이어들이 부스 앞에서 기술 설명을 경청했고, 기업 관계자들은 운용 환경과 위협 양상에 따라 달라지는 ‘맞춤형 설계’ 방안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전시장을 둘러보면 B2B 미팅이



23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ADEX 2025’에 국내 주요기업 제품이 전시되어 있다.

잇따라 열리는 모습도 쉽게 관찰됐다.

한화그룹 전시관은 이러한 변화 흐름을 집약적으로 보여줬다. 진입로를 중심으로 ‘A’자 형태로 배치된 부스에서 그룹 계열사들이 육·해·공 전장을 아우르는 통합 미래 체계를 선보였다. 한화오션은 17m급 모듈형 무인수상정(USV)을 선보였다. 동일 플랫폼에서 무인잠수정(UUV), 공중정찰발사대(UAB), 로켓 모듈을 교체하며 임무를 전환할 수 있는 구조다. 위성통신을 통한 원격제어가 가능하고 스텔스(저피탐) 형상과 12.7mm 원격조종무장(RCWS)을 갖췄다.

한화시스템은 중거리(M-SAM)에서 장거리(L-SAM) 요격체계로 이어지는

다중 방공체계를 전시했다. 탄도미사일 요격까지 목표로 설계돼 M-SAM의 일부 장비는 이미 수출·양산 단계에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레드백’ 장갑차의 완전 국산화(오는 2028년 목표) 계획을 밝히며 중동 등 해외 수출 시장을 적극 공략 중이라고 강조했다.

현대로템은 육상 플랫폼 분야에서 ‘맞춤형 전차’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수출형 K2 전차(K2PL) 전시모형에는 폴란드군이 요구한 현지형 장비(RCWS, 드론 대응용 소프트킬·하드킬 체계, 능동방어체계)가 탑재됐다. 위협 환경에 따라 진화하는 플랫폼으로 개발 방향이 옮겨가고 있다.

하늘로 시선을 옮기면 대한항공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유·무인 복합 체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줬다.

대한항공은 KF-21 전투기와 함께 작전하는 저피탐 무인편대기(U-UCAV) 및 3종의 소형 무인기를 공개했다. 정찰·전자전·타격 기능을 결합한 플랫폼으로 내년 비행시험을 통해 유·무인 복합 작전 개념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KAI는 KF-21의 공대공 무장 통합 시험 완료와 내년 공대지 무장 통합 시험 착수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에는 무인기와 편대 운용이 가능한 완전 혼합체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LIG넥스원은 다중 방공의 개념을 시

각적으로 구현했다. L-SAM-천궁-해궁-신궁으로 이어지는 위협 차단 레이어를 구성했다. 대드론 드론(드론을 요격하는 드론) 기술도 눈길을 끌었다. 시속 200~250km로 접근해 총돌로 상대 드론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자율체계가 전장 방어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줬다.

ADEX 2025 현장은 한국 방위산업이 향하는 방향을 선명히 보여줬다. 전장의 복잡함만큼 요구는 세분화되고, 기술은 정교해지고 있다. ‘맞춤형 전차의 시대’ 그 말은 이제 현장 전체를 설명하는 문장이 됐다.

/유혜온 기자 dhalehdale@metroseoul.co.kr

K-배터리, ESS 안전기술 고도화… 글로벌 수주 속도낸다

삼성SDI 알루미늄 캔 구조 차별화 LG엔솔 배터리관리시스템 고도화 SK온 LFP, 액침냉각 등 솔루션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에서 ‘안전성’이 핵심 경쟁 기준으로 부상하면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며 수주 전략 강화에 나서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는 각형 알루미늄 캔 구조의 ESS 배터리를 기반으로 내구성과 안전성을 차별화하고 있다. 단단한 알루미늄 케이스는 외부 충격에 강해 전해질 누출이나 내부 단락 가능성을 낮추며 열전도율이 높아 이상 발생 시 내부 열을 빠르게 방출할 수 있다. 또한 내부 압력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

가면 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벤트(Vent)와 특정 전류가 흐를 경우 회로를 차단하는 퓨즈(Fuse)를 내장해 과충전·과전류 상황에서 폭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됐다.

이외에도 최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MOU를 체결하고 ▲ESS 등 설비의 안전관리 정책 발굴 ▲사고 예방 매뉴얼 개발 ▲제조사 원격 모니터링 및 소화 시스템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고도화를 ESS 안전성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쿼크와 협력해 고성능 컴퓨팅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BMS 대비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성능 개선에 나섰다.

또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셀 상

태·잔존용량·퇴화 수준을 실시간 감지하는 배터리 상태진단 솔루션도 구축했다. 여기에 모듈 단위 열전이 억제 설계를 적용해 화재 리스크를 조기에 차단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SK온은 LFP, 액침냉각, Z-폴딩(Z-folding)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한 고안전·고효율 ESS 솔루션을 앞세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SK온의 BMS는 국제 사이버보안 인증(CSA)과 기능안전관리체계(FS MS) 레벨3 인증을 확보하며 기술 신뢰도를 끌어올렸다.

업계 일각에서는 화재 발생 시 셀 결합과 BMS 오류 등 발화 요인을 명확히 식별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의 안전성 기술을 충분히

신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순환식 냉각이나 소화제 분사 방식 등 다양한 안전 기술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은 기술을 축적해 가는 단계”라며 “특히 리튬이온배터리는 구조적 특성상 열폭주 시 자연 소화가 어려워 전소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운영 노하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자국 내 장기 ESS 운영 경험뿐 아니라 북미 시장에서도 실증 사례를 확보하며 운영 측면의 노하우를 키워 왔다”며 “국내도 테스트 베드 구축을 확대하면서 경험 기반의 운영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

대상그룹, ‘대상 AI’ 도입

전략적이고 창의적 업무 지원

대상그룹이 자체 AI 플랫폼을 전사에 도입하며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고 AI 중심 전환(AX, AI Transformation)을 본격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그룹은 2022년 전사적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T)을 선언한 이후 제품 기획부터 개발·운영까지 전 단계에서의 디지털화를 추진해왔다.

이번에 도입된 자체 AI 플랫폼 ‘대상 AI’는 웹 검색, 자료 요약, 보고서 작성, 번역 등 대규모 언어모델(LLM)의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돼, 임직원들이 반복적이고 단순한 작업에서 벗어나 보다 전략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신속하게 실무에 적용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 클라우드 환경에서 자료 유출 위험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됐으며, AI 웹 검색 및 이미지 생성 기능을 연동해 종합적인 AI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등 글로벌 비즈니스에 필요한 주요 언어를 지원하고, PDF,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한글 등 다양한 문서 형식 처리가 가능해 실무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현재는 전사 공통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도입 초기에는 임직원의 AI 이해도 향상과 활용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연말까지 실무 중심 교육 등 다양한 변화관리를 진행해 활용 문화를 확산하고, 향후에는 각 사업 부문별 특화 영역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한성숙 “상생협력기금 실효성 높일 것”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중기 상생협력 촉진 간담회

한 장관, 첫 대기업 공식 만남 가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상생은 일시적 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장관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수·위탁 관계를 넘어 플랫폼, 유통, 금융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한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대기업들과 공식 만남을 가진 것으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SK, 롯데, 한화의 상생 협력 총괄 임원 등 10여 명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각 기업의 상생 협력 추진 현황과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공장 보급과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미래 차 시장에서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LG전자는 협력 업체의 차세대 기술 확보를 돕고 있다. SK는 특히 무상 이전과 기술 협력 플랫폼 운영을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상생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판로 확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대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왼쪽부터)이정희 중앙대 교수, 변태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김성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 왕철민 LG전자 부사장,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강성현 롯데마트 부사장, 윤형조 SK수펙스추진협의회 부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대와 글로벌 진출 지원은 롯데가, K-방산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 지원 체계 구축은 한화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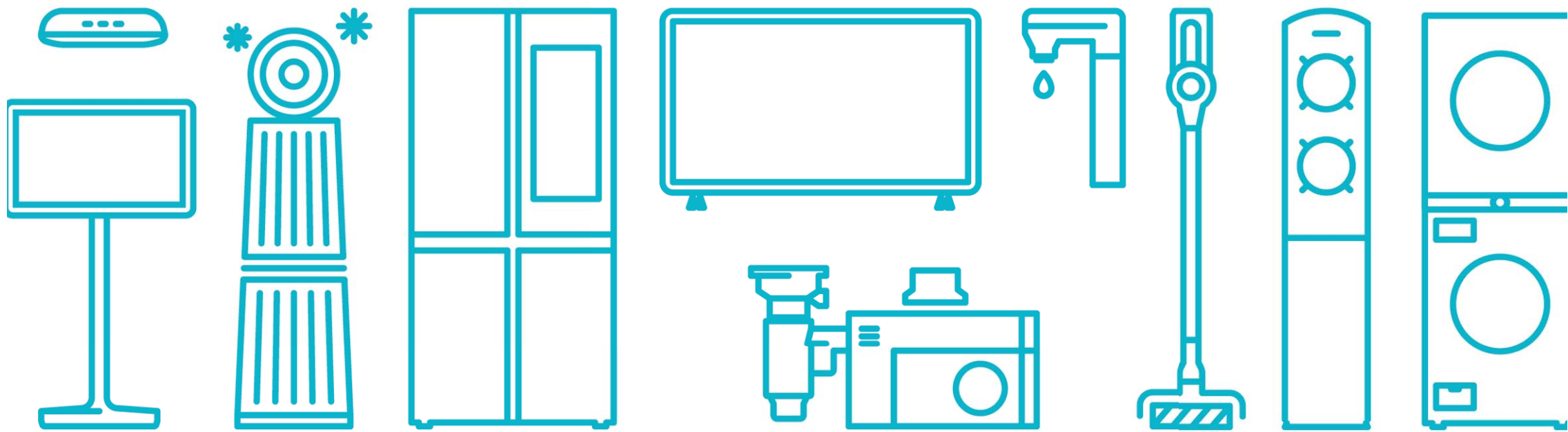
한장관은 “상생협력기금의 실효성을 높이고 납품대금연동제의 조속한 안착

을 통해 공정한 거래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등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조력자로서 다양한 상생 협력 노력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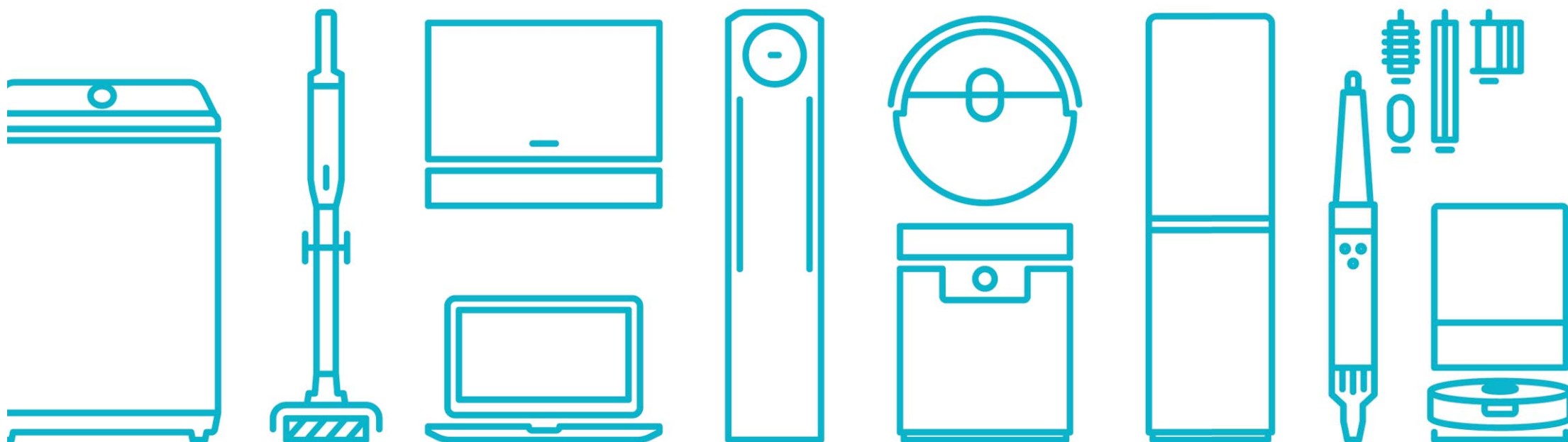
/김승호 기자 bada@

 LG HelloVision

Hello rental



일시불로 안샀다 헬로렌탈로 잘샀다!



요즘 **잘** 나가는 가전! 최저가로 **잘** 사는 방법!

부담 없이 최대 60개월까지, 쓰면서 나눠내세요.

상담문의 1855-1082

rental.lghellovision.net 에서 원하는 가전을 찾아보세요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카카오 ‘카나나’, 해외모델 수준 구현 韓 LLM 성능평가 리더보드 1위 차지

국내 프롬스크래치 모델 중 최고점
한국어 문맥이해, 추론 등 높은 점수
국산 LLM 자립화 첫 전환점 평가

카카오의 독자 개발 AI 모델 ‘카나나’가 한국어 거대언어모델(LLM) 성능 평가에서 국내 최고 순위를 기록하며, 한국어 특화형 초거대 언어모델의 기술자립 가능성과 산업적 경쟁력을 입증했다.

카카오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 카나나가 LLM 성능 평가 리더보드에서 국내 프롬 스크래치(기존 자료나 경험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 형태의 모델 가운데 최고 순위를 차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카카오의카나나-1.5-32.5b-인스트럭트-2504모델은 미국 AI 플랫폼 웨이트앤바이어스가 운영하는 한국어 LLM 평가 시스템 호랑이 리더보드에서 총점 0.7879점을 기록하며 국내 독자 개발 모델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호랑이 리더보드는 한국어 범용 성능, 정렬성, 정보 탐색 능력 등을 평가해 언어모델의 한국어 실질 유용성을 비교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평가 지표다. 이

번 성과는 한국어를 중심으로 한 프롬 스크래치 모델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글로벌 상위 모델과 대등한 성능…
한국어 환경 최적화 구조

카나나는 번역과 정보 검색 영역에서 오픈AI의 o1 모델을 상회하는 성능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어 문맥 이해, 정보 추론, 문장 생성의 일관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렬성 평가에서도 응답의 정확성과 안정성이 우수해, 사용자 신뢰도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모델은 해외 거대 모델을 파인튜닝하지 않고, 모델 구조부터 데이터셋, 학습 프로세스까지 모두 독자적으로 구축한 프롬 스크래치 구조를 채택했다. 카카오는 한국어 데이터의 문법, 어휘, 어순 특성에 최적화된 학습 체계를 설계하고, 실제 서비스 트래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효율 병렬처리 구조를 구현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모델 대비 연산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품질 저하없이 실시간 반응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내 AI 생태계 내 자립형 기술 모델의 신호탄

업계는 이번 성과를 카카이가 보여준

‘국산 LLM 자립화의 첫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어 특화 데이터셋을 독자 구축한 모델이 글로벌 기준에서 검증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AI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카카오의 기술 축적은 향후 공공·금융·교육 등 분야별 맞춤형 AI 서비스 확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카나나 모델이 보여준 정보 탐색과 정렬성의 안정적 성능은 한국어 기반 산업에서 생성형 AI 도입을 가속화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산업 전문가들은 “그동안 한국의 AI 기업들은 대형 외국 모델을 활용해 서비스 레벨을 맞춰왔지만, 이번 결과는 국내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대형 언어 모델을 자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나나는 한국어와 영어 모두에서 강력한 성능을 보이는 초거대 범용 언어모델”이라며 “대규모 서비스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고효율 구조로 고도화 중인 카나나 2.0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내년 ‘소주스토리’ 스마트팩토리 구축

CJ올리브네트웍스, 전 공정 고도화

CJ올리브네트웍스는 ‘소주스토리’의 프리미엄 증류주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업회사법인 소주스토리는 120여개 브랜드와 500여종의 세계 와인을 국내에 독점 공급하는 나라셀라를 모기업으로 두고 있다. 나라셀라는 지난해 한국 소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프리미엄 증류주 개발·제조 사업에 본격 진출했으며, 올 8월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농업회사법인 소주스토리 안동소주 스마트팩토리’ 착공식을 개최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다양한 스마트팩토리 조성 경험을 기반으로 식음료(F&B) 및 바이오 산업에 특화된 스마트제조물류 기술과 구축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수주는 주류 산업에 대한 기술 경쟁력과 성공 사례를 높게 평가받은 결과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원료 입고에서



농업회사법인 소주스토리 안동소주 스마트팩토리 조감도. /CJ올리브네트웍스

부터 발효, 증류, 저장 및 숙성, 병입까지 전체 공정 과정을 고도화해 원료의 원활한 흐름과 교차 오염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작업자 동선을 설계해 최적의 생산 현장을 구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객 맞춤형 스마트팩토리 설계 ▲최신 글로벌 인프라 설비 공급 ▲분야별 전문 기업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소주스토리만의 차별화된 공장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jk10

LG U+ ‘익시젠’, AI 학회서 인정 받아

‘EMNLP 2025’에 채택

LG유플러스는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기술 ‘익시젠(IXI-GEN)’ 관련 논문이 세계 최고 수준의 자연어처리(NLP) 학회인 ‘EMNLP 2025’에 채택됐다고 23일 밝혔다.

‘EMNLP(자연어처리의 경험적 방법)’는 국제언어학회(ACL) 산하에서 주관하는 세계 3대 자연어처리 학회 중 하나다. 글로벌 주요 연구기관과 기업의 최신 AI 연구 성과를 엄격히 심사해 평가한다.

LG유플러스는 이번 논문에서 소형 언어모델(sLLM)의 효율성과 품질을 동시에 높이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핵심은 산업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학습하면서도 범용 언어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도메인 특화 연속학습(DACP)’ 기법이다.

기존 sLLM은 특정 산업에 맞춰 학습하면 일반 언어 이해력이 떨어지고, 범



논문 집필에 참여한 LG유플러스 구성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용 성능을 유지하면 산업 적합도가 낮아지는 한계가 있었다. LG유플러스는 DACP를 통해 산업 데이터와 일반 데이터를 균형 있게 학습하는 방식을 고안했다. 실제 통신·금융 분야 테스트에서 기존 모델 대비 성능이 크게 향상돼, 초거대 모델이 아니더라도 실무에 활용 가능한 수준임을 입증했다.

이번 논문 채택은 LG유플러스의 연구가 학문적·산업적으로 모두 높은 완성도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서현 기자

크래프톤, ‘AI 퍼스트 기업’ 체계전환 선언

1000억 투입해 GPU 클러스터 구축
구성원 AI 톨 직접활용 환경 마련도
인사제도·조직 운영 체계 개편

크래프톤이 인공지능(AI)을 기업 운영 전반의 핵심 전략으로 선언하며, ‘AI 퍼스트’ 체계 전환과 대규모 투자를 본격화했다.

크래프톤은 23일 사내 소통 프로그램 크래프톤 라이브 토크를 통해 ‘AI 퍼스트 기업으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김창환 대표는 이 자리에서 “에이전틱 AI를 중심으로 업무를 자동화하고, 구성원은 창의적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경영 체계를 본격화하겠다”며 “AI를 통해 구성원의 성장을 촉진하고 조직의 도전 영역을 넓히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AI 퍼스트는 AI를 문제 해결의 중심이자 최우선 수단으로 삼는 경영 전략이다. 크래프톤은 이를 통해 전사 생산성과 기업가치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AI 중심 기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회사는 약 1000억원을 투입해 GPU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이 인프라는 복잡한 과제의 연산과 AI 에이전트 기반 워크플로우 자동화를 지원한다. 2026년 하반기까지 AI 플랫폼과 데이터 통합·자동화 기반을 완성한다는 목표다. 또한 2026년부터 매년 약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성원이 다양한 AI 톨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AI 퍼스트의 전사 내재화를 위해 인사제도와 조직 운영 체계도 개편한다. 핵심 전략은 ▲AI 퍼스트 문화 정착 ▲업무 방식·조직 혁신 ▲새로운 도전과

성장 기회 제공의 세 가지 축이다.

크래프톤은 사내 학습 플랫폼 AI 러닝 허브를 중심으로 학습·공유·실험 문화를 조성하고, AI 라운드테이블과 해커톤을 운영해 실무 중심의 AI 활용 생태계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한 조직 관리 범위를 확장해 구성원이 더 큰 목표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고, AI 전문 인력을 위한 맞춤형 인사 체계를 도입한다. 확보된 리소스는 신작 개발과 혁신 프로젝트에 재투자해 AI와 창의성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번 선언을 계기로 크래프톤은 기술·조직·문화 전반에서 AI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경영과 의사결정 전 과정에 AI를 적용할 방침이다.

/최빛나 기자

LG U+, 서버해킹 피해 신고서 제출

“국민적 우려 불식 위해 적극 대응”

LG유플러스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해킹 피해와 관련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유플러스는 23일 해킹이 의심되는 사안을 KISA에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회사 측은 “아직 조사에서 명확한 침해 증거는 안 나왔지만, 국회 요구도 있었고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적극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진행되는 조사에도 성실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21일 흥범식 LG유플러스 사장은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자리에 출석해 서버 삭제 논란과 해킹 정황에 대한 질의를 받고 KISA 신고 의사를 내비쳤었다. 그는 당시 “침해가 확정돼야 신고하는 것으로 알았다”면서도 “오해를 풀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신고를) 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8월, 세계적인 해

킹 전문지 ‘프랙 매거진’이 LG유플러스 서버 8938대, 계정 4만 2526개, 직원 167명의 정보가 새어 나갔다고 폭로하면서부터다.

KISA는 그보다 앞선 7월에 이미 해킹 가능성을 인지하고 LG유플러스 측에 침해 사실을 신고하라고 권고했지만, 회사는 따르지 않았다. 결국 과기정통부가 나서 현장 조사를 권고했고, 현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게다가 LG유플러스가 문제의 서버 OS를 8월 12일에 새로 설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증거 인멸을 위해 서버를 폐기한 것 아니냐는 논란까지 불거진 상태다.

/김서현 기자 seoh@

네이버, 공간지능 기술로 지도 서비스 혁신

실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과
플라잉뷰 3D 새롭게 선보

네이버가 네이버랩스의 공간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실내 증강현실(AR) 내비게이션’과 ‘플라잉뷰 3D’를 새롭게 선보였다. 지난해 거리뷰 3D를 선보인 데 이어, 실제 공간의 이동 경험을 디지털로 확장하며 지도 서비스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네이버는 23일 GPS 없이도 실내에서 정확한 길안내를 받을 수 있는 실내 AR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정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카메라로 주변을 비추면 이동 방향이 현실 공간 위에 AR로 표시돼, 복잡한 복합시설에서도 직관적인 이동이 가능하다. 이번 업데이트로 음식점, 카페,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 편의시설

탐색 UI도 개선됐다.

실내 AR 내비게이션에는 네이버랩스의 공간지능 기술이 적용됐다. 3차원 공간 정보를 구축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과 AI 비전 측위 기술을 통해 GPS가 닿지 않는 환경에서도 이용자의 위치와 방향을 정확히 파악한다.

네이버는 지난 8월부터 네이버 1784와 그린팩토리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기술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코엑스를 시작으로 복합시설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네이버지도는 또한 전국 주요 명소를 3차원으로 탐색할 수 있는 플라잉뷰 3D 서비스를 공개했다. 경주 첨성대, 서울 코엑스,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전주 한옥마을, 부산 벡스코 등 10개 지역에서 우선 적용됐다.

/최빛나 기자

외국인·기관 팔고, 개미 사들여 절반만 오르는 2부리그 ‘코스닥’

2차전지 뻥 바이오주 대부분 하락
‘부실기업’ 대거 포진… 신뢰하락
코스닥 기업의 47% ‘적자 기록’

“코스닥 시장 정상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내부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려고 한다. 우량주들, 전망 있는 혁신 기업들, 벤처 기업들 이런 데가 좀 인정 받아야 하는 데 수십 년간 (코스닥에는) 몇십원짜리 주식이 대부분이다.” (9월 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 이재명 대통령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꼭 짚어 코스닥 시장 정상화를 얘기했지만, 코스닥 개미(개인투자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개인 투자자 위주의 시장 활성화와 코스닥 기업들의 실적 부진·한계 기업 비중 등이 기초체력을 낮추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반기 들어 코스피는 25.2% 오른 반면, 코스닥지수는 11.6%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월 들어서는 코스피가 3900선에 도달하는 등 12.3% 올랐지만, 코스닥지수는 3.6% 상승에 머무르면서 상승률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를 이어가는 것은 개인 투자자뿐이다. 올해 상반기 개인은 4조2095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5985억원, 2조458억원을 순매도했다. 하반기 흐름도 비슷하다. 개인만 2조6587억원을 사들였고, 기관은 1조4787억원, 외국인은 1869억원을 팔았다.

사상 최고치 행진을 하는 코스피와 정반대의 흐름이다. 하반기 코스피에서 개인이 24조4906억원을 팔아치울 동안에도 기관과 외국인은 3조4362억원, 16조7651억원을 사들였다.

올해 코스피 상승세를 견인했던 반도체 종목들로 이뤄진 KRX반도체 지수는 91.24% 넘게 상승한 반면, 코스닥 유력 업종인 제약·바이오 기업 위주로 구성된 KRX헬스케어 지수는 14.82% 상승에 그쳤다. 최근 코스닥시장에서 급등세를 보이는 2차전지를 뻥 바이오주 대부분이 이탈들어 하락세다.

코스닥 내 진작 퇴출됐어야 하는 부실 기업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해왔다는 것도 문제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를 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코스닥기업의 23.7%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을 하회했다. 조사에서 코스피 기업은 10.9%였다.

또 코스닥은 단타 매매 성향이 강한 개인 투자자 비율이 높아 주가 변동성이 크고 지속적인 상승 동력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다.

코스닥 상장 기업들의 체력도 바닥권이다. 한국거래소의 상반기 결산 실적에 따르면 코스닥 기업 1207곳 중 563곳(46.64%)이 적자를 기록했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계기업의 주식 수익률은 장기간 시장 평균을 하회하고 있고, 특히 한계기업 비중이 높은 코스닥시장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며 “2011년 이후 매년 6월을 기준으로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을 지수에서 제외하고 재산출할 경우, 지난해 6월 말 기준 코스닥 지수는 37% 추가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3883.68)보다 38.12포인트(0.98%) 하락한 3845.56에,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879.15)보다 7.12포인트(0.81%) 내린 872.03에 거래를 종료했다.

/뉴시스

‘개미의 힘’ 장중 3900 돌파 관세협상 기대 ‘사천피’ 눈앞

23일 코스피가 장 중 3900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중 갈등이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지만, 한·미 관세협상 타결 기대감과 정부의 정책 기대감,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 등이 호재가 되고 있다.

여기에 10·15부동산대책 발표 후 부동산에서 증시로 ‘머니무브’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까지 더해졌다. 코스피 4000이 가시권에 들었다는 전망도 나온다.

코스피 0.98% ↓, 3845.56 마감
장중 사상 최고가 3902.21 터치
외국인 하루 4088억 순매도
개인 유가증권 8000억 순매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0.98% 하락한 3845.56에 마감했다.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오전 11시 50분쯤 사상 최고가인 3902.21을 터치했다. 장중 3900선을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지난 21일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3893.06)를 2거래일만에 갈아치웠다.

최근 국내 증시를 밀어올렸던 외국인은 이날 4088억 순매했다. 외국인의 빈 자리를 메운 것은 개미들이다. 개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8000억원 어치를 사들이며 이를 연속 순매수했다.

한미 간 관세·무역 협상이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

책실장은 22일 워싱턴 DC 인근 델레스 국제공항 도착 직후 취재진과 만나 “양국 간 협상을 몇 달째 이어오고 있다”며 “지난 몇 주 동안 양측이 매우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자세로 주요 쟁점들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주제는 의견이 근접해 있고 한두 가지 주제에서 입장 차가 여전히 크다”며 “사실상 꽤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중 갈등은 증시에 부담 요인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에 소프트웨어가 새로운 카드로 등장했다. 미국 정부는 노트북부터 제트엔진에 이르기까지 미국산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제품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출 제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인공지능(AI) 거품 논쟁과 미국 일부 중소형 은행들의 부실 대출 우려도 부정적 요인이다.

증권가에선 코스피가 앞으로 더 오를 거란 전망이 잇따른다. 삼성증권은 올해 남은 기간 코스피 밴드(등락범위)를 3600~4050까지 제시했고,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내년 코스피가 4200선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당 원화 가치는 전 거래일보다 9.8원 하락(환율은 상승)한 1439.6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허정윤 기자 zellkova@

서학개미, 엔비디아 이어 코인·금 ETF까지 베팅

해외주식 Click

엔비디아 주간 순매수 3.5억 달러 1위
‘비트코인 채굴’ 아이리스에너지 2위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투자자) 자금 흐름이 빅테크 단일축에서 ‘AI·코인+금’의 이중축으로 재편되고 있다. 엔비디아 매수 강도는 지속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주와 금 ETF로의 유입이 동시에 커지며 위험·안전자산으로 양극화하고 있다.

23일 한국예탁결제원 집계에 따르면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 1위는 엔비디아(NVIDIA)였다. 순매수 규모는 3억5318만 달러(약 5050억원, 1430원 환율 적용 시)에 달했다.

2위는 비트코인 채굴업체 아이리스에너지(아이렌·IRIS ENERGY)로 2억3558만 달러(약 3370억원), 3위는 이더리움 보유량 상위 기업 비트마인 이



ChatGPT로 생성한 ‘금, 엔비디아, 비트코인 보유 및 채굴 기업들 사들인 서학개미’

머전테크놀로지(BITMINE IMMERSION TECHNOLOGIES)로 2억2110만 달러(약 3160억원)였다.

특히 아이렌(아이리스에너지)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비트코인 채굴로 전력 비용을 절감하고, 최근 AI 클라우드 사업 진출을 선언하며 ‘가상자산 + AI 인프라’ 테마를 내세우고 있다.

비트마인은 이더리움 보유량이 300만 개를 넘어 글로벌 블록체인 자산주로 부각됐다. 최근 한 주 동안 이더리움을 20만 개 이상 추가 매입하며 보유 규

모를 324만 개(약 130억달러)로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두 종목 모두 최근 한 달 새 30~40% 급등하며 국내 투자자 순매수 상위권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

금 ETF로의 자금 유입도 뚜렷하다. 금 현물 ETF인 ‘SPDR 골드셰어즈(GLD)’가 7위, ‘아이셰어즈 골드트러스트(IAU)’가 18위에 오르며 안전자산 선호 흐름도 동시에 강화됐다. SPDR 골드셰어즈(GLD)는 순매수 3억1936만 달러(약 4567억원)로 상위 권에 안착했으며, 아이셰어즈 골드트러스트(IAU)도 약 5945만 달러(약 850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미국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와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지속이 맞물리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동시에 편입하는 ‘양극화 투자’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21일(현지시간) 국제 금값이 6% 넘게 급락하며 12년만의 최대 낙폭을 기록한 만큼, 서학개미들의 금 ETF 매수세가 향후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 /허정윤 기자

거래소, 내달 6일 코넥스 상장사 합동 IR

KC산업·로지스몬 등 33개사 참여

한국거래소는 내달 6일 한국IR협회의 회, 코넥스협회와 공동으로 ‘2025년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합동 IR’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KC산업, 로지스몬, 무진메디 등 33개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기업별 일대일

미팅과 현장 질의응답(Q&A)을 통해 기업에게는 자금조달의 기회를, 투자자에게는 양질의 기업정보를 제공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기업설명회는 3개 세션(세션당 11곳)으로 나눠 기업당 2회씩(각 50분) 진행된다. 이날 나수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중소벤처업계 현황과 이동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의 로봇 인공지능

(AI) 업황 설명회가 함께 진행된다.

이번 합동 IR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무료 행사다. 오는 11월 5일 오후 6시까지 한국IR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신청자에게는 행사 당일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한국거래소는 “코넥스 상장법인의 기업설명회(IR)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원활한 투자정보 제공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미래에셋증권, 올해 운용수익 10조 돌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액 업권 1위

미래에셋증권이 올해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액에서 전 업권 1위를 차지했다.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퇴직연금 적립금 공시에서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의 올해 총 퇴직연금 적립금 누계액은 5조7299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고객들의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약 10조원의 수익을 거둔 점이 성장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개인형퇴직연금(DC·IRP) 부문에서 두드러진 성장을 보였다. 미래에셋증권의 개인형퇴직연금 적립금은 3분기에만 2조7585억원 증가했으며, 전체 42개 퇴직연금 사업자 중 유일하게 2조원을 넘어 업계 최고 증가액을



미래에셋증권 을지로 센터원. /허정윤 기자

기록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증권업계 연금자산 규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9월 말 기준 전체 연금자산(개인연금, 퇴직연금 DB·DC·IRP 합산)은 52조원을 돌파했다.

회사는 체계적 상품 구성과 장기 운용 원칙, 맞춤형 포트폴리오 서비스, 연금 인출기까지 아우르는 종합 연금 플랫폼을 통해 퇴직연금 운용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APEC 주간, 삼성·LG 등 ‘K-Tech 쇼케이스’ 한자리에

첨단산업 협력·투자 유치 총력전

산업부, 글로벌 CEO 투자 유치 AI·모빌리티 협력 프로젝트 추진
국내외 기업 4000곳 수출상담 박차
삼성·LG 등 기술 시연 경쟁력 홍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주간인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국내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글로벌 경제인 행사가 열린다.

행사는 경주를 중심으로 서울, 부산, 대구 등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글로벌 CEO와 국내 주요 그룹 총수급 등 1700여 명이 참여한다. 산업통상부는 이를 계기로 외국인 투자 유치와 첨단산업 협력 강화, 통상외교 실질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인다.

우선 APEC CEO Summit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맷 가먼 AWS CEO, 사이먼 칸 구글 부사장, 앤토니 쿡·율리히 호만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등 글로벌 AI·디지털 산업 핵심 인사들이 참석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크리스토퍼 르베스크 테라파워 CEO, 케빈 켈러거 산토스 CEO, 삼사이리 이브라힘 페트로나스 부사장,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CNO, 장직 팔라예 오라노 USA CEO 등 원전·LNG 기업 경영진이 참여한다.

글로벌 금융·투자 분야에서는 제인 프라이저 씨티그룹 CEO, 안나 비에르데 세계은행 운영총괄이사, 아자이 판데이 AIIB 부총재, 이사벨 채터튼 ADB 국장 등 주요 국제금융 관계자가 참석해 민관 금융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국내에서는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조석 HD현대 부회장, 주형욱 SK이노베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시 예술의 전당(CEO Summit) 등 주요 경제인 행사장소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션 사장, 주영준 한화퓨처프루프 CSO, 이흥락 LG AI연구원 공동대표, 오경수 두나무 CEO, 로버트 포터 쿠팡 부사장 등 주요 기업 총수급이 글로벌 CEO와 직접 교류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27~30일 경주 예술의전당과 엑스포 공원에서는 ‘퓨처테크 포럼’이 열린다. AI, 조선, 방산, 가상화폐, 미래에너지, 리테일이코노미 등 6대 첨단 분야를 주제로 국내외 기업과 기관이 직접 세션을 진행하며 산업 현장과 글로벌 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SK그룹은 ‘오픈소스 AI를 통한 글로벌 생태계 구축’과 ‘지역 혁신 허브로서 AI’ 발표를, HD현대는 ‘자율운행·AI-원자력 기반 미래 선박 기술’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AI 기반 방산 기술’과 ‘지속가능한 평화’ 방안을 소개한다. 두나무는 ‘디지털 자산과 글로벌 신뢰경제’, 한국수력원자력은 ‘탄소중립과 회복탄력적 에너지전환’을 주제로 발표한다.

28~31일 열리는 ‘K-Tech 쇼케이

스’에는 삼성전자, LG전자, SK그룹,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표 기업이 참여한다. 삼성은 차세대 갤럭시 Z 트라이폴드와 고급 디스플레이 기술을, LG는 투명 OLED 기반 미디어아트를, 현대차는 자율주행·로보틱스·수소 모빌리티 기술을 공개하며 산업과 기술력을 직접 선보인다.

서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에서는 300여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기업이 신규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부산·대구 ‘수출 붐업 코리아 Week’에서는 70개국 1700여 해외 바이어와 국내 4000개 기업이 1만 건 이상의 수출 상담을 진행한다.

산업부는 이번 APEC 주간 중 주요국 각료와의 양자회담에 배석하고, 글로벌 CEO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신규 투자 유치와 협력 성과 창출에 나선다. 산업부 관계자는 “AI와 에너지 등 핵심 산업 글로벌 리더들이 한국에 모이는 만큼, 첨단산업 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10월 수출, 주요 지역 모두 ‘마이너스’

여한구 본부장, 수출동향 점검회의

10월 들어 20일까지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지역별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시장별 수출 현황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산업연구원,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등 관계 기관도 참여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10월 1~20일 기준 주요 지역 수출이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미국은 42억 달러(-25%), EU 25억 달러(-20%), 중국 66억 달러(-9%), 아세안 53억 달러(-12%)로 집계됐다. 전체 수출액은 30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 줄었다. 산업부는 추석 연휴로 조업일수가 지난해 22일에서 올해 20일로 줄어든 것이 감소세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다.

지역별 상황을 보면, 미국은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 등 주요 품목이 관세 영향으로 둔화세가 지속됐고, EU는 생산·소비 불확실성으로 성장세가 제한적이다. 중국은 경기 부양 정책이 수출에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미국, 중국, 아세안 등 산업부 소속 수출지역 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별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부

긍정적이지만 미·중 관세 협상 등 통상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아세안은 제조업 생산 둔화 추세지만,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호실적은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여한구 본부장은 “선도국가들의 산업·통상정책이 우리 수출에 새로운 리스크로 작용하는 지금, ‘보는 속도’와 ‘움직이는 속도’ 모두를 높여야하는 시점”이라며 “지역별 담당관들은 수출기업 및 연구·지원기관과 원팀으로 현장·분석·대응을 하나로 묶는 조기경보·대응 체계를 상시화하고 빈틈없는 핀셋 지원을 해줄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송미령 “전략작물직불 예산 대폭 확대”

농식품부, 쌀 구조개선 본격화

정부가 쌀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장기적 구조 개선책 마련에 나선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충북 청주 오창의 청원생명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급 조절용 벼를 포함한 전략작물직불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단기적 수급 대응을 넘어 쌀 수급 불균형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장기 구조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전략작물 생산과 연계한 소비 활성화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현장에서는 콤바인 수확 작업에 직접 참여한 뒤 농업인들과 올해 작황 및 쌀 값 동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농업인들은 최근 쌀값이 회복돼 올해 수매가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했다.

이에 송 장관은 “올해 수확기 대책으

로 예상 과잉물량 16.5만 톤 중 10만 톤을 격리하고, 내년 2월 전에 수급을 다시 전망해 상황에 맞는 대책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해 수확기에는 농업인들이 ‘풍년의 기쁨’을 느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올해 예상치 못한 개시무늬병 확산으로 피해가 커 이를 농업재해로 인정했다. 신속한 조사 후 피해 농가에 복구비를 지원하고, 농가 희망 시 피해 벼를 정부가 전량매입해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방문한 청원생명농협쌀공동사업법인은 도정 및 쌀 판매만을 하는 다른 미국종합처리장들과 달리 쌀 스킨, 떡류 등 다양한 쌀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가공시설을 운영하는 등 사업을 다각화하여 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하고 있는 곳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협, ‘친환경·유통·수급’ 혁신으로 농업 재편

온라인 유통 확대·AI 도축로봇 도입
지속가능 농업생태계 구축 본격화

농협중앙회가 안정적인 영농환경 마련 및 농업인 경영지원 강화에 나섰다.

농협중앙회는 23일 “기후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소비 트렌드 변화 속에서 우리 농축산업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친환경 생산 확대·온라인 유통체계 개편·수급안정 기반 구축 등 세 가지를 중심으로 농업현장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농협은 안전한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정정 생산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협은 친환경 농산물 취급액을 올해 5809억원에서 내년 6315억원으로 약 8.7% 확대한다. 아울러 농축협 간 협약 체결을 통해 퇴·액비 자원화와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농협 관계자는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환경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가축분뇨를 바이오가스·교체연료로 재활용하는



사진은 농협경제지주 안성팜랜드를 방문한 어린이가 가축 먹이주기 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순환형 저탄소 축산의 선도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방역물품 비축기지(30개소) 운영을 체계화하고 있다. 또, 농협은 스마트 유통을 통해 농축산물 가치 제고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농협형 생생배송’이나 ‘바로바로팜’ 서비스 등 온·오프라인 유통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배송이 완료되기 전까지 농축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온라인 도매시장도 빠르게 성장 중이다. 올해 834억 원 규모였던 온라인도매 시장 취급액은 내년 1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 공판장 확대와 전용상품 개발, 산지 농가의 온라인 진출 지원도 본격화되고 있다.

농협이 운영하는 축산물공판장에 인공지능(AI) 도축로봇과 스마트 경매시스템 도입 등 스마트화도 함께 추진 중이다.

아울러 농협은 수급안정 기반 강화로 농가소득을 지키고 있다.

농축산물 수급안정 시스템을 고도화해 가격 급등락에 대응하고, 계약재배 물량 확대와 참여농협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산지의 가격안정과 시장 대응력을 강화한다. 쌀 산업의 안정화를 위한 벼 매입자금 지원과 재배면적 조정도 추진 중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뒷받침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환경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국민이 신뢰하는 농업 발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라면보다 맛있고, 커피보다 따뜻한,
삼각김밥보다 꼭 찬 우리의 이야기

뮤직 드라마

불편한 편의점

Always

24
Times

2023.4.8 SAT - OPEN RUN 올웨이즈씨어터

원작 김호연, 불편한 편의점 (2021, 나무옆의자) |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연출/각색 홍현우 | 음악감독 김은지
무대디자인 주미영 | 조명디자인 정필균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문혜인 | 무대감독 박민서 | 컴퍼니매니저 소우현

주최·제작 극단 지우 | 후원 나무옆의자출판사 waterfallstory | 예매처 NOL ticket | 공연문의 02-332-4902

임대인 신용도 등 24종 위험요인 분석

서울시, AI로 안전한 전세계약 지원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
보유주택 수, 생활패턴 등 정보 반영

서울시 쿠폰으로 무료 이용 가능
전세사기 피해 안전망 역할 기대

서울시가 임대차계약 전 확인해야 할 위험 요인을 잘 알지 못하는 청년들 보호에 나선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4일부터 임차인이 계약 전 주택과 집주인의 위험 요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개시한다.

시는 인공지능(AI)으로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 약 1500명의 데이터를 분석 후, 일반 임대인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공통점을 발견해 11가지 위험신호를 도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신용도’다.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의 전세 계약시점 평균 신용점수는 591점으로, 일반 임대인(908점)보다 300점 이상 낮았다. 신용불량자 비율도 4명 중 1명(약 27%)에 달해 금융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졌다.

‘보유 주택 수’에서도 차이가 명확했다. 사기 임대인의 25%가 4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반면, 일반 임대인은 4채 이상 보유 사례가 거의 없었다. 세금 체납 등 ‘공공정보 보유율’ 역시 사기 임대인이 26%로 일반 임대인(0.7%)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생활 패턴의 불안정성’도 두드러진다. 최근 3년 내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 변경 빈도가 일반 임대인보다 약 2배 이상 높아, 금융 행태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집주인 정



서울시 혜택 1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울시 혜택 2 집주인 체납·연체 조회 결과

서울시가 임대차계약 전 확인해야 할 위험 요인을 잘 알지 못하는 청년들 보호에 나선다. /서울시

보 11개 항목을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에 반영해 주택 정보를 포함한 총 24종 정보를 담아 전세 계약의 안전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집주인에 대한 정보는 집주인이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다.

집주인 정보 11종은 ▲KCB 신용점수 ▲채무불이행 현황 ▲금융질서문란 정보 ▲신용불량정보 ▲부도·개인회생 여부 ▲세금 체납 ▲연체·사기 이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이다. 여기에 ▲최근 3년 내 휴대전화 번호 변경 횟수 ▲주택 주소 등록 건수 ▲연체 건수까지 확인할 수 있어 집주인의 금융 상태와 생활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주택 정보 13종에는 ▲건축물 용도

▲관리침해 여부 ▲위반건축물 여부 ▲시세 대비 빛(근저당) ▲가격 적정 여부 ▲보증보험 가입 여부 ▲계약 시 추천 특약 ▲대출 확률 ▲계약안전도 ▲담당자 종합 의견 등이 제공된다.

또한 ▲공개된 집주인 정보(보유 주택 수, 보증금 미반환 이력, 가압류 횟수, 고액 상습 체납 여부, 금융사기 이력) ▲등기부등본 세부 정보 ▲사기 유형 시나리오까지 제공해 계약 전 꼼꼼한 점검이 가능하다.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이용 방법은 ‘서울주거포털’ 또는 ‘청년몽땅정보통’의 전세사기 위험분석 배너를 통해 민간 부동산 리스크 분석 플랫폼 ‘내집스캔’에 접속한 뒤, 서울시 쿠폰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보고서는 서울 지역 임대차계약 예정자 1000명을 대상으로 무료 제공되며, 계약을 고려 중인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AI가 수집·분석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서비스가 임차인이 사전에 주택과 임대인의 숨겨진 위험 징후를 인지하고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해, 전세사기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향후 데이터 기반 정책을 확대해 임차인 보호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는 계약 전 위험 요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피해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라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세계도로기술인, 고양시 모여 기술 공유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고양시는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5년 서울 세계도로대회 이후 1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 도로 행사로, 70여 개국 5000여 명의 도로 관계자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고양시와 한국도로공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도로협회가 주관하며 국토교통부가 후원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세계 도로기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창의적인 기술과 혁신적인 정책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라며 “글로벌 마이스 도시인 고양시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가 미래 도로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국가 간 협력과 동반 성장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초연결 미래 도로(Future Road; Hyper-connection)’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연례회의, 학술세션, 워크

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첫날인 26일에는 참가자 등록과 함께 세계도로협회(PIARC) 국가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27일부터 28일까지는 PIARC 이사회 및 기술분과위원회가 이어진다. 같은 기간 국제도로연맹(IRF)이 주관하는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적인 포장 솔루션’ 워크숍도 함께 열린다.

한편, 같은 기간 열리는 ‘2025 국제도로교통박람회(ROTREX)’는 도로·교통분야의 국내 최대 전문 전시회로, 130개 기업이 310개 부스를 운영하며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 자율주행, 가상현실(VR), 드론 기술 등 다양한 체험형 전시가 마련돼 참가자들은 사전 등록 또는 현장 등록을 통해 직접 첨단 기술을 경험할 수 있다.

이번 대회는 글로벌 도로산업의 새로운 비전과 기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고양시가 국제 마이스 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안양시, 내년 재난관리기금 282억 확정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열어

안양시는 내년도 재난관리기금이 282억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22일 시청 전자회의실에서 안전관리 분야 전문가와 시 공무원 등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제3회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기금 변경안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은 총 282억원 규모로,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 사업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설해대책 장비 임차 확대 ▲빗물배수펌프장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재난예·경보시설 확충 ▲재난안전체험관 운영 시설개선 등이 포함됐다.

한편, 올해 기금 변경안에는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과 설해대책 장비 임차료 증액 등 세부 조정 사항이 담겼다.



지난 22일 오후 시청 3층 전자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제3회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모습. /안양시

안양시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재난관리기금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재난 예방과 신속 대응 역량을 강화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나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주빈 안전행정국장은 “재난관리기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으로 재난 예방과 대응체계 고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인하대
이재우 교수 연구팀
新 팬데믹 대응 제안

실제 인구 이동 데이터 반영한
새 메타인구 감염병 모형 제시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최근 이재우 물리학과 교수(사진) 연구팀이 인구 이동 기반 전염병 확산 예측 모형을 활용해 팬데믹 대응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이재우 교수의 지도 아래 인하대 통계물리연구실 소속 조창희 박사과정 학생이 제1저자로 참여했다. 권오규 국가수리과학연구원 박사과 이경은 국립환경연구원 박사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다.

연구팀은 기존의 평균장 이론(mean-field theory)에 기반한 전염성 확산 모형인 SIR(감염 가능자·감염자·회복자)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 인구 이동 데이터를 반영한 새로운 메타인구(metapopulation) 감염병 모형을 제시했다. /이현진 기자

교육부, 전국 15개 학교
농어촌 우수학교로 선정

교육·진로·지역사회 협력사례 발굴
경북 춘양초, 경기 청운중 등 선정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025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에서 전국 15개 학교(초 8·중 5·고 2)를 우수 학교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은 2020년부터 농어촌 학교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교육과정·진로 프로그램·지역사회 협력 사례를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전국에서 91개교(초 47·중 29·고 15)가 응모했으며, 1차 서면 심사와 2차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15개교가 선정됐다.

주요 선정 학교로는 경북 봉화 춘양초등학교가 백두대간 수목원·미래환경체험관 등 지역 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공동체 의식을 높였고, 경기 양평 청운중학교는 학년 구분 없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제



교육부.

동행 인문학·교과통합수업으로 호평받았다. 전남 담양 한빛고등학교는 섬진강 도보기행, 철학수업 등 ‘낯섦을 통한 성장’ 교육과정으로 주목받았다.

올해 선정된 학교에는 교육부장관 표창이 수여되며, 우수사례집 발간과 온라인 홍보를 통해 전국 교육 현장에 성과가 확산될 예정이다.

이해숙 학생건강정책국장은 “농어촌 학교들이 지역의 특색과 자원을 살려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찾아오는 농어촌 학교를 만들기 위해 우수사례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중등교사 임용 경쟁률 ‘5.5대 1’

서울시교육청, 응시원서 접수 결과
사서 교과 ‘32대 1’로 가장 높아

서울시 중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전년보다 낮아진 가운데, 사서 교과가 32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3일 ‘2026학년도 중등학교교사 및 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공립학교 교사는 1000명 선발에 5500명이 지원해 평균 5.5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6.20대 1)보다 소폭 하락한 수치로, 선발 인원은 86명 늘었으나 지원자는 171명 감소했다. 교과별로는 중등교사(교과)가 4.89대

1로 전년(5.87대 1)보다 낮아졌고, 사서(중등)는 3명 선발에 96명이 몰려 32.00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국립학교 교사는 9명 선발에 71명이 지원해 7.8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사립학교 교사는 위탁 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공·사립 동시지원제를 선택한 33개 학교법인(47교)은 128명 선발에 3188명이 지원해 24.91대 1, 복수지원제를 택한 47개 법인(64교)은 143명 선발에 2190명이 지원해 15.3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1월 22일 제1차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장소와 세부 안내는 11월 14일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LG CNS, 유엔난민기구 기술 지원

LG CNS는 유엔난민기구와 최근 'AI 기술을 활용한 난민소송 지원'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신균 LG CNS 사장(오른쪽 두번째)과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 CNS



신한카드, 'GIVE & RUN' 캠페인 실시

신한카드가 창립 18주년을 맞아 'GIVE & RUN(이하 기부런)' 기부 캠페인을 실시하고, 기부금을 세계자연기금(WWF)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박해창 신한카드 경영기획그룹장(왼쪽)이 송정호 세계자연기금 마케팅본부 국장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신한카드



한국씨티은행, '개인 컵 사용의 날' 행사

한국씨티은행은 환경 보호와 장애인 인식 개선을 주제로 '개인 컵 사용의 날'과 '로비 음악회' 행사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씨티은행 지속가능성 협의회가 기획하고, 서울시와 한빛예술단이 협력해 진행됐다. /한국씨티은행



넷마블문화재단, '2025 게임탐험대' 진행

넷마블문화재단은 지난 22일 넷마블 본사에서 학생 60여명을 대상으로 '2025 게임탐험대'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구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게임산업 및 게임업계의 다양한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넷마블문화재단



'에이스스퀘어 인천계양점' 오픈

에이스침대가 '에이스스퀘어 인천계양점'을 오픈했다. 23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에이스스퀘어 인천계양점'은 약 243평(803㎡) 규모로 넓고 쾌적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고 매장에 방문한 고객들이 에이스침대의 다양한 제품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에이스침대

조현민 사장, 'VISION 2045' 선포... "지속가능 미래 기여"

한진그룹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조원태 회장 등 주요 경영진 참여
"세계 최고의 종합 물류기업 도약"

"100년, 그 이상의 시점이 지나도 더욱 사랑받는 세계 최고의 종합 물류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겠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진행된 한진그룹 창립 80주년 기념행사에서 한진그룹의 도전과 성장의 여정을 돌아보고 다가올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조 회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1945년 11월 한진상사 창업으로 시작된 한진그룹의 역사는 '한민족의 전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창업주 회장님의 '수송보국(輸送報國)' 경영철학의 기틀과 선대 회장님의 헌신 속에서 새로운 물류의 길을 끊임없이 개척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단순한 기념식을 넘어 한진그룹의 역사와 경영철학, 미



조현민 한진 사장이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진행된 한진그룹 창립 80주년 기념행사에서 새로운 미래 전략을 담은 '그룹 VISION 2045'를 소개하고 있다.

래비전, 문화예술, 고객에 대한 감사 및 임직원과의 동행까지 모두를 하나로 잇는 다리(Bridge)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조 회장은 "한진그룹의 빛나는 80년 역사는 각자 자리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한 임직원들이 있었다"며 "회사 성장의 튼튼한 기반이 되어준 임직원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고객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는 한진그룹 성장의 원동력"이었다며 "수송의 본질이 마음

과 마음을 잇는 일임을 생각하며 국민 성원에 보답하고 고객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현민 한진 사장은 한진그룹의 새로운 미래 전략을 담은 '그룹 VISION 2045'도 선포했다.

조 사장은 "한진그룹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쉽없이 나아가 있다"며 "인류의 더 나은 삶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끊임없는 열정과 혁신으로 풍요로운 삶과 번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그룹은 새로운 비전 달성을 위해 ▲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이커머스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모빌리티 기업으로 도약 ▲AI 기반 초자율화 등을 통해 물류 기술 혁신 선도 ▲국내 방위산업 및 우주발사체 제작 등 축적한 기술력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우주 물류 솔루션 구축 ▲IT역량 및 첨단 AI기술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고객에게 최고 수준의 수송 물류 경험 제공 ▲항공 및 물류의 유기적 연계·활용한 관광·호텔·부동산등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부가가치 창출 ▲인재 및 물류 전문가 양성을 위한 투자 지원 확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CSV 및 사회공헌 활동 등 ESG 경영 확대 등 총 7가지로 나눠 미래 발전 전략을 공개했다.

항공우주사업과 관련해 조 사장은 "우주에 사람을 보내기에 앞서 관련 물류 사업부터 추진하려고 한다"며 "폐기된 인공 위성을 회수하거나 우주 광산 부분에 집중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oul.co.kr

기아, 라파엘 나달 파트너십 연장

"끊임없는 도전정신, 기아 철학 맞닿아"

"위기의 상황에서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였다. 혁신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아와 제 인생의 2막에서도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다."

세계적인 테니스 레전드 라파엘 나달이 2004년부터 우정을 이어온 기아에 대한 남다른 인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12년 만에 한국을 찾은 나달은 첫 공식 일정으로 기아와의 파트너십 연장 조인식을 진행하고 아름다운 동행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

기아는 23일 서울 성동구에 있는 브랜드 체험 공간 기아 언플러그드 그라운드에서 송호성 기아 사장, 나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후원 파트너십을 연장하는 조인식을 개최했다.

송호성 사장과 나달은 이날 파트너십의 의미를 담은 명판에 서명하며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으로의 발전을 약속했다.

송 사장은 "나달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열정은 기아가 추구하는 브랜드



송호성 기아 사장(오른쪽)과 라파엘 나달이 23일 서울 성동구 기아 언플러그드 그라운드에서 열린 공식 파트너십 연장 조인식에서 재계약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며 "2014년 17세 신생 선수 시절부터 세계 최정상 선수로 성장했을 때도 변치 않는 진솔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나달은 "앞으로도 기아와 상호 영감을 주는 동반자로서 새로운 혁신을 향해 도전하는 기아의 여정에 힘을 보태고 함께 더 큰 미래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5주기 추도식

이재용 회장 등 삼성 경영진 대거 참석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사진)의 5주기 추도식이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가족 선영에서 엄수된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올해 추도식에는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김재열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등 전·현직 경영진 150여명도 선영을 찾



는다.

추도식 후 이재용 회장과관계사사장단은 경기 용인시 소재 삼성 인력개발원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이

건희 선대회장을 기릴 예정이다. 한편 이 선대회장은 1987년 부친인 이병철 창업회장 별세 후 삼성그룹 2대 회장에 올랐고, 1993년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로 대표되는 '신경영 선언'을 통해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성운 기자

부음

▲ 김도하 씨 별세, 김대일(서현회계법인 공인회계사)·김윤일(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한국증권금융상임감사)·김지윤(치과 의사)씨 부친상, 박영배 씨 장인상 = 22일, 부산의료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25일. 051-607-2990
▲ 김태숙씨 별세, 이창섭(전 한국전력 부사장)씨 부인상, 이준호(캡코솔라㈜ 대표)·이준서(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이준희씨 모친상, 박찬국(서울대 교수)씨 장모상, 심

연진·김선정(한국렐리 전무)씨 시모상 = 23일 오전 3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25일. 02-3410-3151
▲ 정동윤(12·13대 국회의원·전 지역난방공사 사장·전 문경CC 사장·전 동북학원 이사장·향년 88세)씨 별세, 정인환·정인경·정미경·정진환씨 부친상, 김희정·성주현씨 시부상, 유재욱씨 장인상 = 23일 오전 6시 30분,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25일. 031-787-1510

한화그룹, 차세대 무탄소 선박 개발 착수

HMM·KR 기술협력 MOU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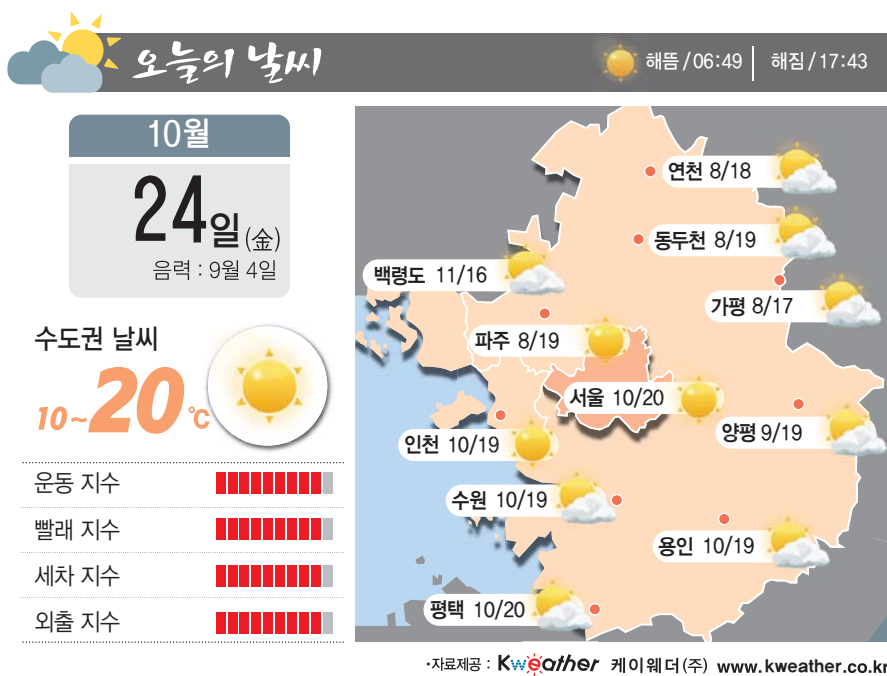
한화그룹이 HMM, 한국선급(KR)과 함께 차세대 무탄소 선박 추진체계 개발에 착수하며 해운·조선·에너지 기술 분야 간 협력 모델 구축에 나선다.

23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한화파워시스템을 포함한 한화그룹 4개 계열사(파워시스템, 오션, 에어로스페이스, 시스템)는 HMM, KR과 함께 차세대 무탄소 선박 추진체계 공동 개발을 위한 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해운, 조선, 선박 추진기술, 선급인증 등 각 분야의 전문 역량을 결집해 국내 주도형 무탄소 선박 솔루션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참여자들은 7~8K급 컨테이너선에 적용가능한연료전지·암모니아·가스터빈 기반 통합 추진 시스템과 2K급 피더 컨테이너선 적용용연료전지·배터리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대상으로 개념설계, 경제성 평가 및 신선휘 개발을 공동 수행한다.

/원관희 기자 wkh@



한·일 대륙붕 7광구, 물거품 되는가?



송지승 교수의
경제 읽기

우려했던 올해 6월 25일부터 가능해진 일본으로부터의 7광구 개발 종료 통고가 아직 없다. 우리에게 7광구로 더 익숙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50년 만기로 2028년에 종료되며, 계약 당사자인 한국이나 일본 어느 쪽이 종료 3년 전에 서면 통고로도 계약이 종료된다. 7광구는 한국 서해와 동중국해 대륙붕이다. 한·일 대륙붕 개발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자. 1968년 10월 유엔의 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는 7광구가 위치한 인접 대륙붕 지역에 풍부한 석유가 매장됐을 가능성을 밝혔다. 한국은 1970년에 7광구를 선포했고, 당시 석유를 해외에 의존하던 한국과 일본은 대륙붕개발에 관심을 가지면서 대륙붕문제가 양국의 중요한 외교 의제가 됐다.

한·일 양국 정부는 1974년 1월 3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했지만, 정식 발효는 4년 뒤 이뤄졌다. 한국이 1974년 12월에 국회 동의를 얻었지만, 일본은 공동

개발구역(JDZ)에 대한 불만으로 4년 뒤인 1978년에야 국회 동의를 거쳤다. 이후 1986년까지는 공동탐사와 7개 공구 시추를 했지만, 경제성이 있는 유전은 발견하지 못했다. 급기야 1993년 9월 한·일 양측 조광권자는 유전발견의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조광권을 모두 반납했고, 공동탐사도 중단됐다. 이후 답보상태에 있다가 국민의정부 시절인 2001년 양국 산업부장관급 회담을 계기로 2002년 양국 조광권자인 한국석유공사와 일본석유공단의 7광구 내 2소구에 대한 공동 물리탐사를 했다. 그러나 일본은 경제성에 대한 의문을 갖고 공동탐사 중단을 통보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공동탐사 재개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회신이 없는 상태다.

그러면 사업 초기에 7광구 공동탐사에 나름 적극적이었던 일본 정부가 1993년 이후 소극적으로 전환한 이유는 무엇일까? 겉으론 석유매장의 채산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대륙붕 기준과 경제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 즉, 대륙붕에 대한 ICJ의 판결이 1969년에는 육지의 자연적 연장선이었으나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대륙붕 인접 국가 간의

중간선의 거리를 따르는 쪽으로의 변화에 영향을 받은 듯하다.

2028년 한·일 공동개발 계약이 만료된 후에는 7광구는 한·중·일 3국 간 영유권 주장이 대두될 수 있다. 이대로 가면 명재경 각(命在頃刻)의 상황에 놓이게 될 7광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전략적인 행보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한국은 대륙붕의 자연 연장보다 등거리 우선이라는 새로운 규범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를 하는 것이다. 왜냐면 새로 성립된 국제관습법은 형성 초기부터 지속적인 반대를 한 국가엔 적용되지 않는 관례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7광구 인접 북서면에 있는 5광구에서 독자적인 자원개발을 시도하는 것이다. 만일 여기서 석유 시추가 이뤄진다면, 이는 일본이 하여금 공동개발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소위 빨대효과를 가질 수 있다. 셋째는 한·일 양국이 중국의 대륙붕 주장에 대한 협의와 공동 대처를 위해서 양국 정부는 물론 국회 간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역대 일본과 외교적으로 가장 관계가 긴밀했던 지난 정부에서 7광구 공동탐사의 물꼬를 다시 트지 못한 것은 석연찮고 아쉬울 따름이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민주주의라는 햇살 아래서 자란 문화강국



기저수첩
서예진
(정치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승리하고 내란은 진압되고, 오늘의 시련은 새로운 K-팝, K-드라마, K-무비의 소재가 될 것입니다.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8일, 지금은 국무총리가 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발표한 당의 입장문 마지막 문장이다. 당시에 기자는 이 문장을 이해하지 못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라는 발언의 뜻을 몰랐다.

백범일지 부록 ‘나의 소원’에 있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는 문장은 이미 유명하다. 그러나 어

떻게 하면 그게 가능한지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몇년 전부터 ‘나의 소원’이 생각나는 일이 연이어 벌어졌다. 오스카상을 타기도 하고, 드라마, 영화, 식품뿐 아니라 시위현장도 찾아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드라마가 인기있거나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 들어간 건 놀라운 일도 아니게 됐다. 불과 한 세대 전엔 상상도 못 했던 일 아닌가. 그런데 최근 10년 전에 보던 중국드라마를 다시 보다가 깨달았다. 우리는 민주주의 덕을 본 것이라는 걸. 10년 전 쯤, 기자는 ‘량야방’, ‘대군사 사마의’, ‘위장자’, ‘후궁견환전’, ‘연희공략’ 등 여러 중국 드라마를 봤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작품은 보지 않는다. 손이 안 가서다. 중국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이라는 부서가 방송과 출판 정책 및 심의를 관장한다. 모든 영상출판물은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허가가 없으면 아예

기획 단계에서 막힌다. 사전 심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사회주의 가치관에 맞느냐다. 그래서 역사왜곡도 할 수 없고, 환상도 안 되고, 정치적인 메시지도 담을 수 없으니 인간 관계극, 가족화극, 직업정신극 위주로 나온다는 평가를 받는다. 왜냐, 기획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셀프 검열’을 해서다. 셀프 검열은 창의성의 말살이란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나라와는 정 반대의 결과 아닐까. 우리나라는 가끔 특정 작품이 역사왜곡을 했다는 등 비판을 받기도 한다. 모 드라마는 그런 비판으로 인해 조기 종영했으나, 이것은 당국의 조치가 아니라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작품조차도 자유로이 만들 수 있다. 그러니 민주주의라는 햇살이 계속 비취지는 한, 우리 문화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syj@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0월 24일 (음 9월 4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기대가 커서 서운함도 크다. 48년생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마라. 60년생 이직이나 진로변경은 불리하니 심각하게 고민해야. 72년생 뒤늦은 투자는 인생의 먹구름. 84년생 일취월장의 기회가 오니 적극적으로 나서자.



37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웃으면 복이 온다. 49년생 남의 실수가 내게는 기회로 오지만 웬지 불편. 61년생 밤이 길어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 73년생 사람은 누구나 각각의 운명이 있다. 85년생 모난 돌이 정맞는 법이니 자중.



38년생 동서남북으로 운이 열렸으니 업무를 열심히 하라. 50년생 하나를 주고 둘을 얻는다. 62년생 항상 소자품을 잘 챙겨라. 74년생 큰 흐름을 벗어나지 말고 움직여라. 86년생 지치고 피곤한 날이니 배우자의 도움이 절실하다.



39년생 시작한 일에 기대는 많으나 실리는 없다. 51년생 어린 사람과 연쟁이 생기니 말조심하자. 63년생 눈앞의 실속보다 내일을 중시하자. 75년생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쏟지 말자. 87년생 직장에서 승진하고 집안에 경사가 있다.



40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 53년생 격한 말은 서로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 65년생 가족 간에도 공과 사를. 77년생 뉘더라도 어떤 인생이든 꽃피는 시기는 있다. 89년생 사랑이 부족하다면 반려견을 절대 키우지 마라.



41년생 닭피와의 거래는 손조롭다. 53년생 삼각관계에 간섭함이 있으니 의지가 필요. 65년생 환경 좋은 곳에서 마음을 다스려라. 77년생 탁월한 성실함이 나를 지탱해왔다. 89년생 만나는 즐거움보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찾자.



42년생 사돈에게 양보할 일이 생긴다. 54년생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진다. 66년생 이사는 해도 건축으로 낭비를 줄여가며 해야. 78년생 돌아봄이 없는 사람일수록 화를 잘 내는 법인데. 90년생 남이 차린 밥상이 불편하다.



43년생 혈관질환이 의심되니 건강검진을 받자. 55년생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며 따라가다 빛만 진다. 67년생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격. 79년생 아침부터 호랑이 떼와 육신각신이다. 91년생 부모님의 도움이 감사할 줄도 알아라.



44년생 마음이 편안해야 일도 잘 풀린다. 56년생 일을 자꾸 만들어 크게 벌이지 않도록. 68년생 아니라고 생각할 때 바로 잡아야. 80년생 손 재수가 있으니 세금을 미리 내자. 92년생 가야 할 길은 먼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45년생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내 실수도 알려진다. 57년생 벌을 두려워하면 꿀을 모을 수가 없다. 69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하는 지혜를 갖자. 81년생 언제 먹구름이 올지 모르니 더 겸손하게 93년생 금할수록 서두르지 마라.



46년생 필요 이상의 의미 부여는 상황을 왜곡시킨다. 58년생 결혼생활은 양보와 이해로 이루어진다. 70년생 머리만 민지 말고 노력을. 82년생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니 건강 유의. 94년생 유흥이 많은 날이니 외출을 자제하는 것도 필요.



47년생 작은 것에 집착 말고 일단 보고 진행. 59년생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가장 큰 자산. 71년생 고인 일은 부모님의 조인으로 해결. 83년생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는데. 95년생 백만 송이의 장미가 길에 널여있지만 가시도 있다.



김상회의四季 신승검 묘역의 명당

강원도 춘천에는 명당 중의 명당 춘천시 서면에 있는 신승검 장군 묘역이다. 이 묘역은 풍수지리의 교과서 같은 곳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유는 주변 지형의 형상과 기운의 응집이 눈에 띄일 정도로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다. 신승검은 후삼국 시대에 왕건을 구한 충절의 상징이다. 왕건이 적군에 포위당해 위기에 처했을 때 주군을 대신해 목숨을 바쳤다. 왕건은 신승검 묘를 이곳에 만들고 도굴을 막으려고 세 개의 가짜 무덤을 만들었다. 최고의 충신에게 최고의 예우를 한 것이다. 묘역을 정할 때 첫손에 꼽아야 할 것은 용맥과 혈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춘천 서면은 북배산의 용맥이 내달리다 머무는 곳 힘차게 내려오던 산세가 부드러운 기운으로 변화하는 곳이기도 하다.

기운이 응집한 지역 묘의 입지는 산세 수세 방위 지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정하며 그 핵심이 혈 자리다. 혈 자리는 용맥이 응집하여 생기가 뭉친 곳으로 맥이 끊기지 않고 부드럽게 내려와 포근히 감싸안는 형세를 갖춰야 한다. 묘역의 혈은 산줄기가 내려오면서 완만히 멈추어 용이 잠든 듯한 형상 속에 자리하고 있다. 혈 자리 주변에는 토질이 부드럽고 습기도 적당하며 기운이 머물기 좋다. 묘역 앞쪽으로는 평탄하고 넓은 들이 펼쳐져 있어 명당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다. 풍수의 관점에서 보면 신승검 묘역은 공을 많이 들인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주산과 안산의 형세 청룡과 백호의 길이 혈 자리가 있는 지점의 산세와 토질 등이 풍수 이론에 그대로 들어맞는다. 균형은 물론이고 안정성까지 갖춘 명당이다. 명당은 후손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자연의 맑은 기운인 청기가 강해서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 장수마을이 있거나 인재가 많이 배출되는 것은 그런 이유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7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81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학습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칸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미움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8	5			9		3
	6						8	
8		7	1			4		2
				4		8		1
			2		4			
7		4		8				
3		2			5	6		8
	5						3	
6		1			8	7		9

1	8	5				6		4
	4				7	1	6	5
6	5			4				9
	2							
		2				4		
							4	
2				8			5	1
4	1	8	7				3	
9		1				7	8	2

6	7	2	8	9	8	1	2	9
2	8	9	1	8	6	9	7	
8	1	9	6	7	2	1	8	9
9	6	8	2	8	9	7	1	2
9	2	1	7	8	2	9	8	6
1	2	8	6	7	2	1	9	8
2	9	7	8	9	1	2	6	8
7	8	9	1	2	6	8	9	1
8	9	6	1	2	9	8	7	2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매달 다른 매출과 복잡한 세금, 잘 관리하고 있는 걸까?"

"정산부터 가게 관리까지 한 번에 도움받을 순 없을까?"

"우리 가게에 꼭 맞는 정책자금, 누가 좀 알려줬으면..."

HANA THE SOHO

하나더소호

개인사업금융의 든든한 파트너

소호 사장님의 모든 고민을 해결할 하나뿐인 솔루션



맞춤 금융



경영 지원



간편 금융

| 명동 '곰국시집' 유미화 사장님 | 곰국수 하나로 한국의 맛과 전통을 지켜온 곰국시집, 20년간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샴페인 롬바흐... ‘제로 도사주’로 오직 테루아만



안 상 미 기자의

Why, wine 301

땅이 먼저다. 포도밭을 방문하면 땅부터 파본다. 켜켜이 쌓인 단층을 모두 알 수 있을 만큼 깊이 파서는 토양별로 나눠담고 물을 붓는다. 향을 맡기 위해서다. 테루아가 가진 향과 미네랄을 하나도 빼지 않고 와인에 모두 담아내겠다는 의도다.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지질학자가 향만 맡고는 말하는데 실제 와인의 향과 정확히 일치한다. 올해 100주년을 맞은 샴페인 하우스 롬바흐다.

롬바흐의 최고경영자(CEO) 토마 롬바흐는 최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롬바흐는 테루아를 중시하는 부르그뉴 스타일의 샴페인”이라며 “토양의 다양함 자체가 훌륭한 와인을 만드는 기본요소”라고 강조했다. 토마는 롬바흐 설립 100주년을 맞아 월드투어를 진행 중이다.

먼저 샴페인의 당도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롬바흐에 대한 이해가 쉬워진다. 샴페인은 병숙성이 끝나면 효모 양금을 병목으로 모아 제거한다. 이때 손실된 와인을 보충하기 위해 포도즙과 당을 첨가하는 도사주(Dosage)를 하면서 샴페인의 당도가 결정된다.

샴페인의 잔당이 리터당 12g 미만이면 달지 않다는 뜻의 ‘브뤼(Brut)’로 구분하며, 6g 미만이면 ‘엑스트라(Extra) 브뤼’다. 사실상 잔당이 거의 없는 ‘브뤼 나투르(Nature)’는 3g 미만이어야 한다. 당



롬바흐의 최고경영자(CEO) 토마 롬바흐가 최근 한국을 방문해 100주년 기념 퀴베를 선보이고 있다.

분을 첨가하지 않아 ‘제로 도사주’라고도 한다.

롬바흐는 샴페인을 만들 때 제로 도사주인 브뤼 나투르를 고집하고 있다. 음식과 비교하면 재료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조미료를 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토마는 “테루아 순수함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제로 도사주가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며 “당이 없는 만큼 더 긴 숙성을 통해 풍미와 맛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음식과도기가 막히게 잘 어울린다. 단 것을 먹고 나면 입맛이 푹 떨어지는 것을 반대로 적용하면 쉽다.

이제 테루아의 차이를 느껴볼 차례다. 샤도네이 100%에 2015년으로 품종과 빈티지 모두 같다. 포



왼쪽부터 롬바흐 100주년 기념 퀴베인 롬바흐 퀴베 센티네르 브뤼 나투르 로제 드 세니에 베르즈네 그랑크뤼 레 마르키즈와 롬바흐 브뤼 나투르 르 메닐 쉬르 오제 그랑 크뤼.

/안상미 기자

도밭만 다르다.

‘메닐 쉬르 오제’는 밀도가 높은 샤도네이가 특장인 생산지다. ‘롬바흐 브뤼 나투르 르 메닐 쉬르 오제 그랑 크뤼’는 연기같은 부섯의 미네랄이 입안 전체를 코팅한다 느낄 정도로 인상적이다. 라임 등 과실향이 좋은 산도와 어우러진다.

‘슈이’는 좀 더 넓은 지역으로 북쪽의 둥글고 풍부한 풍미와 동쪽의 날카롭고 미네랄 특성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롬바흐 브뤼 나투르 슈이 그랑크뤼’는 미네랄은 요오드향, 과실은 자몽 계열이 뚜렷하며, 산도가 더 높아 생동감이 느껴진다.

롬바흐는 소비자들도 테루아의 개성을 알 수 있도록 와인병의 백 레이블을 스티커처럼 떼면 지도가 있어 어느 포도밭인지 알 수 있도록 했다.



문화 단신

kt밀리의서재, 올타임 레전드 ‘베르나르 베르베르’ 편 공개

kt 밀리의서재가 오리지널 영상 콘텐츠 ‘올타임 레전드’의 신작 ‘우주적 이야기꾼,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인생책’을 공개했다.

‘올타임 레전드’는 밀리의서재가 기획한 오리지널 영상 시리즈로, 독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책을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과 함께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한다. 출연자는 작가, 배우, 번역가, 편집자 등으로, 각자의 인생책을 소개하며 작품의 매력과의 미, 독서가 주는 영감을 이야기한다.

이번 편에는 독창적인 상상력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출연했다. 프랑스 출신 방송인 파비앙이 진행을 맡아 작가와 프랑스어로 대화를 나누며 몰입감을 높였다. 베르베르는 인생의 전환점을 준 책들을 소개하고, 최근 출간한 소설 ‘키메라의 땅’을 중심으로 자신

의 창작 세계와 철학적 통찰을 전했다.

그는 창작에 영향을 준 인생책으로 노자의 ‘도덕경’, 대니얼 키스의 ‘엘저너에게 꽃을’, 쥘 베른의 ‘신비의 섬’, 슈테판 츠바이크의 ‘체스 이야기’를 꼽았다. 인류와 세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담은 이 책들이 자신의 상상력을 확장시켰다고 설명했다.

신작 ‘키메라의 땅’은 핵전쟁 이후 파멸한 지구를 배경으로, 인간과 동물의 유전자 결합된 세 종족의 탄생과 갈등을 그린 작품이다. 베르베르 특유의 과학적 상상력과 철학적 사유가 결합돼 생명의 경계, 다양성, 공존의 가능성을 깊이 있게 탐구한다. 밀리의서재는 이 작품을 비롯해 ‘심판’, ‘죽음’, ‘개미’ 등 베르베르의 다양한 작품을 구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샤롯데씨어터 ‘커튼콜 인 살롯’, 새로운 테마로 재단장

국내 최초 뮤지컬 전용 극장 샤롯데씨어터의 뮤지컬 ‘커튼콜 인 살롯’이 뮤지컬 ‘미세스 다웃파이어’ 테마로 새롭게 단장했다.

지난 시즌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를 콘셉트로 꾸며졌던 ‘커튼콜 인 살롯’은 이번 시즌에 뮤지컬 ‘미세스 다웃파이어’를 테마로 새롭게 문을 열어 작품 속 분위기와 감성을 오롯이 담아낸 메뉴와 독창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샤롯데씨어터를 찾은 관객들은 공연 전후는 물론 인터미션 시간에도 ‘커튼콜 인 살롯’을 방문해 작품의 여운을 이어나가며 더욱 깊은 몰입을 경험할 수 있다.

‘커튼콜 인 살롯’은 극의 배경인 샌프란시스코의 대표 음식을 재해석한 ‘다웃파이어 키친’을 선

보인다. ▲극 중 다웃파이어가 ‘Easy Peasy’ 넘버를 부르며 요리하는 장면에서 영감을 받은 칠면조 요리 ‘이지피지 레몬스퀴지’ ▲샌프란시스코의 항구와 바다가 떠오르는 ‘보일링 씨푸드’ ▲샌프란시스코의 전설적인 클래식 디쉬 ‘샌프란시스코 갈릭 누들’ ▲가을에 더욱 잘 어울리는 샌프란시스코 대표 음식 ‘피셔맨스 클램차우더’ ▲기라델리 초콜릿의 깊은 풍미를 담은 디저트 ‘초코퍼지선데이 워드 기라델리’ ▲샌프란시스코 바다를 닮은 푸른 빛의 시그니처 칵테일 ‘미세스 다웃파이어’까지 다채로운 스페셜 메뉴가 준비되어 있다.

스페셜 메뉴와 더불어 ‘커튼콜 인 살롯’ 직원들이 펼치는 특별한 퍼포먼스도 만날 수 있다.



주말은 책과 함께

업무에 도움되는 챗GPT 사용법

회사 공용 챗GPT 계정에 접속해 다른 사람들이 생성형 AI로 무슨 작업을 했는지 엿보는 악취미(?)를 갖고 있다. 편집부에선 기사에 들어갈 이미지를 만들고 있었고, 기자들은 주로 영문 번역이나 사례 검색에 거대 언어 모델(LLM)을 사용했다. 그중 한 후배가 챗GPT와 나눈 대화 내용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그는 “안녕? 나는 무슨 무슨 부서의 N년차 기자이고, 이러저러한 내용의 기사를 쓰려고 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생성형 AI에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 친구의 프롬프트 기록을 훑어보다가 현타(현실 자각 타임)가 왔다. ‘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챗GPT는 사람이 아닌데 8살 아이에게 설명하듯 차근차근 지시사항을 알려주는 게 마치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는 듯했고, 일일이 그런 프롬프트를 써서 입력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귀찮게 느껴졌다.

최근 주변에서 ‘업무에 GPT를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았는데, 늘 “NO(노)!”라고 답했다. 기사 작성 시간이 족히 두 배는 더 걸렸고, 결과물도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교과서’를 읽다가 필자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챗GPT=바보’라는 생각을 가진 독자들에게 저자는 일갈한다. “GARBAGE IN, GARBAGE OUT(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컴퓨터의 출력값은 입력값을 토대로 산출되기에, 답변이 마음에 안 든다면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책은 ‘프로그래밍의 미래는 프롬프트 작성이다’는 선언과 함께 ▲구체적 지시 ▲명확한 단어 ▲맥락 제공 ▲구조의 형식화 ▲일관성 유지 등 5가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본 원칙을 제시한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교과서

서승완 지음/애드앤미디어

저자는 단순한 단어나 문장으로 끝내지 말고 그것이 지칭하는 바를 상세히 부연하며,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피하라고 충고한다.

또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이유와 의도를 제시하고, 배경 지식이나 참고 정보를 입력하면 결과물 제어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프롬프트 작성시 일정한 패턴이나 구조를 갖추고 직접 만든 명령문을 다양한 조건에서 여러 번 시도하며 일관된 형식이 유지되는지, 의도에서 벗어난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지 계속 확인하라는 조언도 덧붙인다.

이외에도 두 개 이상의 예시를 제시하는 ‘퓨 샷(Few Shot) 기법’, AI 모델에 페르소나를 부여하는 ‘역할 지정 기법’, 언어 모델에 상세한 결과 도출 과정을 먼저 제시해 정확하고 포괄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사과의 연쇄 기법’ 등 AI로부터 원하는 결과물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12가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이 추가로 소개된다.

196쪽. 1만6000원.

/김현정 기자 hjk10@



IZAKAYA
NAMU
이자카야 나무

EVENT

1 + 1

정식
이벤트



이벤트 기간 | 2025년 10월 15일(수) ~ 10월 30일(목)

장소 | 이자카야 나무 15개 전 지점

참여방법 | 정식 주문 고객 (저녁 7:30까지 주문 가능)

혜택 | 저녁 정식 6종 1+1 (동일메뉴 1+1, 단품 제외)

“기술 개발부터 생산까지… K-바이오 종합 가치사슬 완성”

기조강연

김 주 희 인벤티지랩 대표이사

혁신의약품 개발 위한 플랫폼 운영
현재까지 35개 파이프라인 개발
연구개발 역량, 대량생산체제 갖춰
제약·바이오 성장 패러다임 바꿀 것

혁신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한 플랫폼 전문기업 인벤티지랩은 원천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K바이오 플랫폼'의 경쟁력을 높인다. 특히 독자 기술을 다양한 질환에서 실질적으로 응용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나아가 사업화하는 성과를 이뤄내, 국산 기술이 글로벌 무대로 진출하는 길을 열고 있다.

22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 주최로 열린 '2025 제약·바이오포럼'에서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는 '약물전달시스템' 플랫폼



22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 주최로 열린 '2025 제약·바이오 포럼'에 참석한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가 기조강연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폼을 고도화하기 위한 전략을 공유했다.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인벤티지랩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35개의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다. 외부에서는 국내 및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10건의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인벤티지랩이 다방면에서 기업 입지

를 폭넓게 확장할 수 있는 성장동력은 '미세 유체역학'이라는 공학 기술을 접목한 연구개발 역량이다. 미세 유체역학(마이크로플루이드스)은 머리카락 굵기만큼 아주 가는 관에서 액체나 기체 같은 유체가 어떻게 흐르고 분포하는지 물리적 거동과 특성을 연구하는 분야다.

실제로 인벤티지랩은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만드는 플랫폼 기술 '드럭플루이딕', mRNA 등 유전체 전달이 가능한 '진플루이딕'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주희 대표는 “인벤티지랩의 드럭플루이딕을 통해 균일한 크기의 약물전달용 미세 입자를 제조할 수 있다. 입자의 품질은 물론, 약동학 측면에서도 차별성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인벤티지랩 파이프라인 중에서 가장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는 탈모 치료제 후보물질의 경우, 기존 저분자 화합물은 반감기가 짧아 매일 복용해야 하고 혈당 농도가 급격히 오르내리는 한계점이 있다”며 “하지만 인벤티지랩 플랫폼 기술은 약물이 하루가 아닌 두 달 이상 유지되도록 그리고 안정적으로 방출되도록 설계하는 데 쓰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벤티지랩이 내놓은 임상시험 결과나 데이터는 약물전달시스템 개발 경쟁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준으로 자리

매김하며 인정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연구개발과 함께 인벤티지랩은 ‘생산 내재화’라는 승부수를 던지며 시장 선점에 나섰다.

김 대표는 “인벤티지랩 플랫폼으로 얻은 신약 후보물질들은 안전성, 유효성 등에서 혁신 품질을 확보한 상태이며 엔지니어링에 기반한 인벤티지랩만의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쉽게 말해 인벤티지랩은 품질보장과 대량생산 두 가지를 모두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공장을 직접 짓고 인증을 받을 때 필요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해소했다”며 “인벤티지랩 설립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약물전달시스템 플랫폼이 급변하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각광받는 첨단 제약 기술의 일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제약·바이오 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재생치료·신약개발 혁신 가속 K-오가노이드로 글로벌 도약”

강연

유 종 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이사

오가노이드 기반 완치 수준 재생치료
임상시험 도구 활용, 고부가가치 창출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가 기존 약물의 한계점을 개선한다는 전통적인 신약개발 방법론에서 K제약·바이오가 한층 더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22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 주최로 열린 '2025 제약·바이오포럼'에서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는 '오가노이드 기반의 바이오 산업 인프라 구축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오가노이드 기술을 기반으로 두 가지 핵심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ATORM(아톰)-C'는 장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로, 적응증은 염증성 장질환 등이다. 이 치료는 환자 유래 세포를 맞춤형 오가노이드로 증식, 배양, 생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자의 손상된 장기에 오가노이드를 이식해 체내에서 조직을 재생시킴으로써 완치 수준의 치료 효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 대표는 “현재 아톰-C를 4명의 환자에서 투여 후 4명 모두에서 증상이 호전됐고 3명에서는 궤양들이 완치가 됐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다음으로는 신약 후보물질의 효능·안전성 평가를 수행하는 오가노이드 기반 임상시험 플랫폼 '오디세이'를 설명했다. 그는 “아직도 신약개발 과정은 성공률은 낮고 비용은 최소 6~7조원에 달하는 실정”이라며 “오가노이드 기반 플랫폼은 신약개발을 위한 도구로 작용함과 동시에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뿐 아니라 기술발전, 윤리적 측면에서도 최근 전 세계에서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오가노이드 활용 가능성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며 “오가노이드 상용화는 시간 문제일 뿐 그 방향성에 있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청하 기자

“종간차이 극복한 오가노이드 임상실패·비용 줄이는 해법”

강연

손 미 영 생명연 국가아젠다연구소장

장 오가노이드 분야 독보적 기술 확보
성체 장과 75% 유사… 신소재 발굴 활용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아젠다연구소장은 22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 주최로 열린 '2025 제약·바이오포럼'에서 오가노이드 기초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손 소장은 동물과 인간 간 '종간 차이'로 동물 실험만으론 안정성 검증이 어려웠지만 2022년 말 미국 FDA가 동물 실험을 필수 항목에서 제외한 것을 '중요한 변곡점'으로 언급하며, “인체 장기 모델인 오가노이드가 신약의 독성과 안정성을 사전 점검하는 핵심 대안으로 공식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소장 연구팀은 인간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다양한 오가노이드를 개발 중이다. 특히 장 오가노이드 분야에서 독보적인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 손 소장은 “2018년, 장 내 면역세포가 분비하는 인자(인터루킨-2)를 활용해 기존 태아 수준이던 장 오가노이드를 성체 장과 75% 유사한 수준까지 성숙시키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2023년 국가 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됐으며, 상용화 기업인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에도 기술 이전됐다.

성숙화된 오가노이드는 고부가가치 신소재 발굴에 즉각 활용됐다. 손 소장은 KGC인삼공사와의 협업을 예로 들며 장 오가노이드 스크리닝으로 영유아의 장 성숙을 촉진하는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균주를 발굴해 기술 이전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사례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대응 프로바이오틱스 개발을 소개했다. 손 소장은 “항생제 내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위(胃) 오가노이드 모델을 활용했다”며 “336종의 균주 스크리닝을 통해 헬리코박터균의 성장과 부착을 동시에 억제하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3종을 발굴, 휴온스에 기술 이전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점막 보호 효능까지 검증해 개별 인정형 제품화 가능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인체반응 정밀재현 가능해져 차세대 연구로 'K-홍삼' 개발”

강연

김 상 규 KGC인삼공사 제품화연구소장

오가노이드 활용해 장 부착력 평가
기능성·안전성, 과학적으로 입증해



김상규 KGC인삼공사 제품화연구소장은 22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 주최로 열린 '2025 제약·바이오포럼'에서 오가노이드(인체 유사 장기 모델) 기반 건강기능식품 연구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김 소장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동물실험 대체 모델로 오가노이드와 인공지능을 권장하는 흐름에 맞춰 인삼공사도 이를 식품·건기식 연구 전반에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가노이드는 인체 장기와 유사한 3차원 세포 구조로 최근 글로벌 연구 트렌드로 부상한 기술이다.

인삼공사는 현재 ▲인삼 유래 유용 프로바이오틱스 선별 ▲장 부착력 평가 ▲홍삼 항노화 효능 검증 ▲간 기능 개선 평가 등의 오가노이드 기반 연구를 진행 중이다.

김 소장은 “인삼의 뿌리·잎·줄기 등 각 부위에서 약 400여 종의 유산균을 분리해 장 오가노이드 모델로 성장과 염증 회복 능력을 평가한 결과, Lactobacillus casei KGC1201 균주가 장세포 성장과 버딩(세포 돌기 형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확인돼 유용한 프로바이오틱스로 선별됐다”며 “또 오가노이드 모델을 활용해 프로바이오틱스의 '장 부착력'을 평가한 결과 기존 암세포주 기반(Caco-2 등) 실험보다 생존율과 부착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인삼공사는 지난 8월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MOU를 체결하고 '오가노이드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했다. 센터는 장(腸) 오가노이드 노화 모델을 구축 완료했으며, 향후 다양한 장기 모델로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 상무는 “오가노이드는 동물실험을 대체하면서도 인체 반응을 정밀하게 재현할 수 있는 차세대 연구 플랫폼”이라며 “홍삼의 기능성과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신뢰받는 K-홍삼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메트로 한줄뉴스



▲홍콩 연론 “트럼프 과학계 억압은 ‘미국판 문화대혁명’”

/사진 뉴시스

▲“日당국, 은행·보험사 암호화폐 판매 금지 방침…증권사 허용”

▲젤렌스키, 역대 최대 국방비 승인…러 동결 자산서 충당

▲EU 19차 대러 제재에 중소기업 12곳 포함…中 반발 예상

▲트럼프 “의회에 마약 카르텔 타격할 권한 요청할 수도”

▲캄보디아 “인신매매·성매매 관련 205명 체포…500명 구출”

“韓 오가노이드 세계 선도… 탈모치료·실명회복 길 열릴 것”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아톰-C’
“임상서 4명 중 3명은 장염 완치”

“생명연이 개발한 장 오가노이드
유사도 미국 45%, 우리는 75%”

한국 오가노이드 기술은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실제 장기와 가장 비슷한 수준의 오가노이드가 세계 최초로 개발됐고,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는 세계 두번째로 인체 임상을 시작했다. 이 뿐 아니라 오가노이드가 실제 장기와 얼마나 비슷한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표준화’ 분야에서도 글로벌을 선도하고 있다.

◆초격차 기술로 승기 잡는다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 주최로 지난 22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2025 제약·바이오포럼’에는 국내 오가노이드 선두주자들이 대거 참석해 초격차 기술들을 소개했다.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는 세계 두번째로 인체 임상이 진행 중인 오가노이드 기반 장(腸) 재생치료제 ‘A-TORM(아톰)-C’의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처음 진행한 임상은 베체트 장염 환자 4명을 대상으로 투여했고 1, 3, 6개월에 걸쳐 변화를 관찰했다.

유 대표는 “기존 치료제로 해결이 되지 않았던 환자들에 A-TORM-C를 투여한 결과, 1개월~6개월 사이 4명 중 3명의 질환이 완치가 됐다”며 “특히 4명의 환자 모두가 임상 증상이 호전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파이프라인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유 대표는 “피부 오가노이드를 활용하면 탈모 치료의 길이 열리고, 망막 오가노이드를 활용하면 망막이 생착되면서



22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 주최로 열린 ‘2025 제약·바이오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실명도 회복이 가능해진다”며 “오가노이드 치료제는 향후 다양한 형태의 장기 조직들을 재생하는 형태의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가노이드 분야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 역시 세계적인 연구 결과들을 공개했다.

손미영 생명연 국가아젠다연구소장은 “생명연이 개발한 장 오가노이드는 2011년 미국 연구팀이 최초 개발한 것보다 인체 장기와의 유사도가 훨씬 높은 수준”이라며 “미국의 오가노이드가 45%라면 우리는 75%까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손 소장 연구팀이 개발한 장 오가노이드 특허기술은 오가노이드사이언스로 이전, 장 재생치료제 A-TORM-C의 기반이 됐다.

손 소장 연구팀은 세계 처음으로 장 오가노이드 모델을 이용해 장 발달 촉진과 염증성 장 질환 보호 효과를 검증한 유산균과 위 건강을 보호하는 유산균을

발굴해 제품화 하기도 했다.

손 소장은 “위 오가노이드를 통해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균주 3종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생성과 부착을 억제하고 염증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했다”며 “파일로리의 성장과 부착을 억제하면서 위 건강까지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균주를 최초 확보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KGC인삼공사는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생명연과의 제휴를 통해 흉삼 등 다양한 건기식의 효과를 확인한 사례들을 공개했다.

김상규 KGC인삼공사 제품화연구소장은 “생명연과 함께 장 노화 모델을 구축, 흉삼이 가지는 항 노화, 노화 회복이나 지연 등의 효과를 확인했으며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며 “오가노이드사이언스와는 흉삼의 간 기능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간 건강 개선 개별인정형 원료로 인정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오가노이드, 글로벌 선도

이 날 포럼장에 모인 오가노이드 전문가들은 한국이 글로벌 오가노이드 분야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손미영 소장은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세계 두번째로 재생 치료제 임상을 시작했고, 기초 연구에 있어서도 세계 최초로 개발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며 “특히도 글로벌 수준에 결코 뒤지지 않기 때문에 초격차 기술 확보가 가능하고 한국 오가노이드가 크게 발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종만 대표 역시 “재생 치료제는 아직 전 세계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나라나 회사들이 많이 없는 실정”이라며 “우리의 오가노이드 재생 치료제를 필두로 재생치료제 분야 글로벌 선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도 내비쳤다.

손 소장은 “정부가 동물대체시험법 활

성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인공지능(AI)과 오가노이드를 중점 추진 방향으로 잡고 있다”며 “세계 첫 오가노이드 상장 기업이 한국에서 나왔고, 삼성도 오가노이드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이 분야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준화 분야에서도 한국은 글로벌을 선도하는 중이다. 손 소장이 주축이 돼 만든 ‘유전자 패널 기반 오가노이드 유사도 평가 시스템’은 현재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오가노이드가 실제 장기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세계 첫 시도다.

손 소장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오가노이드 표준화가 이루어진 것은 한 건도 없기 때문에 그 표준화 절차를 가장 먼저 시작했다는 의미가 크다”며 “힘든 일이지만 오가노이드를 가장 빨리 시작한 연구자의 책임감으로 성과를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中 바이오 굴기 위협… K-바이오 육성책 시급”

개회사

이 장 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과감한 규제 철폐·국외자본 유치 절실”

깊어가는 가을에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님,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님, 그리고 백창욱 첨단재생의료 산업협회 사무총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신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나눈 ‘150세 장수’와 ‘불멸’에 관한 대화는, 세계 바이오 산업의 역사를 바꿀지도 모를 장면입니다. 이는 단순한 빈말이 아니며, 바이오 제약 분야에 대한 중국의 자신감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실제 중국의 바이오테크는 정부 주도로 급부상해 미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바이오 핵



심 기술 7개 가운데 4개 기술에서 미국을 앞질렀다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바이오 R&D 지출은 미국과 동등하며,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에도 진심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급발전은 K-바이오에겐 분명한 위기지만, 동시에 강력한 자극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감한 규제 철폐, 국외 자본 유치,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 등 국가 차원의 육성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좁은 연구소에서 낱알을 새우며 연구를 거듭한 우리의 혁신 바이오 기업들입니다. 독자적 기술로 미래 의료 패러다임을 희망차게 바꾼 K-바이오 벤처들, 이들이 있기에 우리의 K-바이오 미래는 밝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포럼이 ‘골골 100세’가 아닌 ‘건강 100세’라는 인류의 꿈을 실현하는 소중한 기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바이오 약가인하·투자확대·규제혁신 이뤄야”

환영사

이 승 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

“중대 변곡점… 어떻게 대응 하나에 달려”

다시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 바이오 산업은 중대한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글로벌 리더가 될 수도, 혹은 평범한 국가에 머무를 수도 있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크게 발전하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SK바이오팜이 미국 바이오 행사에서 단독 부스를 여는 것을 보고 K-바이오의 미래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독자 기술로 블록버스터를 만들거나, 액러자처럼 기술이전을 통해 성공하는 아주 좋은 산업 생태계가 갖춰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외 환경은 만만치 않습니다. 첫



째, 글로벌 약가인하 등 국제 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둘째, 약 2년간 이어진 투자 위축으로 80%에 달하는 R&D 기업들이 심각한 자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이 아직 산업계 피부에 와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셋째, 규제 혁신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퍼스트 무버’를 강조하지만, 정책은 여전히 ‘팔로워’에 머물러 첨단 재생의료와 같은 혁신 기술이 안착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3류 제약바이오 국가로 남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이 포럼이 K-바이오 생태계를 복원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토론하는 소중한 장이 되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손종욱 기자



▲총력전 거쳐 최종전 가는 한화와 삼성…기다리는 LG는 ‘함박웃음’
/사진 뉴시스
▲문체부 “방만운영 음저협, 되레 정부 압박…강력한 제동 장치 필요”

▲2026시즌 PGA 투어 개막전 ‘더 센트리’ 가뭄으로 취소
▲‘스피드영’, 제21회 대통령배 우승…데뷔 3년 만에 G1 타이틀 차지

▲아이스하키 이충민, 클리블랜드 입단…한국 선수 최초로 AHL 입성
▲‘당구 여제’ 김가영·‘캄보디아 특급’ 피아비, L PBA 16강 진출



국내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요율·관행 등 손봐야
08

metro®

Life

한진그룹
창립 80주년 맞아
‘VISION 2045’ 선포
L1



1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과 정원.
2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단지
내에서 바라본 인왕산 전경.
3다채로운 초화류로 꾸며진 단
지 내 정원.
4단지 입구에 설치된 조형물.
/손진영 기자 son@

도심 속 펼쳐진 입체정원 숲과 주거의 경계를 허물다

아파트의 미학(美學)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올해 6월부터 시작해 이제 입주가 마무리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서울에도 이런 곳이 있을까 싶은 흥제천에 마음을 뺏기며 걷다보면 왼편으로 어느새 단지 입구가 나타난다. 서울 도심 속 숨겨진 보석이라는 말답게 생태하천인 흥제천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노닐고 오리가 떠다니고 있었다. 흥제천 수변 산책로를 쫓 따라가면 한강까지 눈 스톱으로 이어진다.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흥은13구역 재개발로 조성된 단지다. 지상 최고 15층에 총 827세대 규모로 들어섰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별로는 ▲49㎡타입 7세대 ▲59㎡타입 238세대 ▲75㎡타입 23세대 ▲

북한산 자연경관 뛰어난 주거단지
지형 경사지 입체적으로 설계해
단지 이용한 힐가든·산책로 조성

다채로운 초화류·잔디로 정원 꾸며
옹벽과 녹지 연결해 휴식공간으로
홍제 수변공원과 이어진 산책로도

84㎡타입 117세대 ▲테라스 하우스 설계가 적용된 84㎡타입 24세대 등 총 409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됐다.

내부순환로를 바로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서울 주요 간선도로를 탈 수 있다. 지하철역은 다소 멀지만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에서 흥제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아래쪽으로 포방터 시장을 비롯해 상업시설과 행정기관 등이 인접해 생활 인프라도 좋다.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입지 자체가 도심 속 자연이다. 바로 뒤편으로 북한산이 위치하고, 전면으로는 인왕산과 안산을 마주하고 있다. 북한산 둘레길을 이용하면 백련산까지 숲세권이 확장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단지가 자연경관과 어울려 숲과 주거의 경계를 허물도록 설계했다. 북한산의 주변 자연경관을 고려해 15층 높이의 중층 주거단지로 구현했고, 어우러지는 단지 배치를 통해 인왕산과 안산의 전경까지 바라볼 수 있다.

단지 뒤편을 산이 감싸고 있다면 그만큼 단지 자체가 오르막 경사지일 터.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형의 단차를 입체적인 설계로 오히려 장점으로 바꾸

었다. 테라스 하우스는 경사지를 활용했고, 부대시설도 대지 단차를 이용했다. 고저차를 시각적 리듬으로 풀었내 단지 어디에서든 자연과 맞닿은 수평적 조망을 감상할 수 있다. 단지 내에서는 동선이 중앙을 중심으로 좌우로 갈라지고, 북한산 방향으로의 조망이 열려 시야가 확 트인다.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의 조경면적은 총 1만697㎡로 전체 부지의 30%에 달한다. 조경 역시 지형의 단차를 적극 활용해 입체적으로 설계되어 계단형 힐가든과 순환 산책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단지 내부로 들어서면 웰컴그린을 시작으로 엘리가든, 사인힐가든, 계단식화계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엘리가든은 건축물의 입면 디자인과 연결된 선형 정원이다. 옹벽과 녹지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며, 휴식의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사인힐가든은단지 중심부에 잔디광장 형식으로 구성됐다. 다채로운 초화류와 잔디가 펼쳐져 휴식은 물론 모임의 공간으로도 좋다.

단지의 고저차를 이용해 조성된 힐가든은 층간형 공간이다. 단순히 이동을 위한 길이 아닌 보행로 곳곳에 '스테이션(Stay Zone)' 개념을 적용해 잠시 머물러 교류할 수 있도록 각 레벨마다 정원, 벤치, 전망 포인트가 놓여져 있다.

조경은 자연감상용에 그치지 않는다. 단지 내 산책로는 흥제천 수변공원과 맞닿아 달리기와 자전거 등 일상 운동까지 확장되도록 했다. 곳곳에 설치된 휴게 정자와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 등은 가족 단위 활동에도 최적화되어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단지 내 놀이터.